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 악동 육남매 학교를 주름잡다

(The Best School Year Ever·번역논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강수정

2012年 2月

# 악동 육남매 학교를 주름잡다

(The Best School Year Ever·번역논문)

지도교수 김 원 보

강 수 정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年 2月

강수정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12年 2月

# The Best School Year Ever

Soo Jeong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Won 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2.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book revolves around the Herdman kids, who are the worst kid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 is one member of the Herdmans- Ralph, Imogene, Leroy, Claude, Ollie and Gladys- in each grade at the Woodrow Wilson Elementary School. The Herdman kids smoke cigars, lie, steal, swear and occasionally set fire to things. If anything goes wrong, the Herdmans are always there behind it.

The school project for the year demands that students think of compliments for their classmates- all of them. On the last day of school, students have to hand in their compliment papers and even read them out loud. During the process of thinking of compliments, students end up discovering the best hidden parts of their classmates. Surprisingly even the Herdman kids, the undisputed outlaws of Woodrow Wilson Elementary School, have some redeeming qualities that nobody knew until the last day of school.

## 허드만 남매들... 다시 돌아오다!

옛 서부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우리 반 아이들은 모두 ‘카우보이의 삶’이나 ‘전설적인 인디언 추장’이나 제임스 형제들처럼 ‘악명 높은 무법자 가족’에 대한 특별한 숙제를 해야 했다. 부머 말론은 제임스 형제들에 대해 쓰려고 했지만 어린이 백과사전에선 그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쓰지 못했다.

“괜찮아, 부머야.” 캠프 선생님이 말했다. “꼭 제임스 형제들이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무법자 가족을 찾아보렴.”

그래서 부머는 다른 무법자 가족을 찾아냈다. 바로 허드만 남매들이었다.

물론 허드만 남매들은 옛 서부 시대에 산 것도 아니고, 아동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다. 모두 여섯 명인 허드만 남매들은 각 반에 한명씩 우리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한 반에 허드만 남매를 둘씩이나 데리고 있으려면 킹콩 같은 선생님 째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빠도 선생님들의 계약서엔 병가나 의료보험 말고도, 허드만 남매들 중 한 명만 맡는 조건이 틀림없이 포함돼 있을 거라고 하셨다.

허드만 남매들의 범 죄를 장장 3페이지에 걸쳐 순서대로 적은 부머의 글은 반에서 최고였다. A+를 받을 만도 했지만 캠프 선생님은 부머에게 처음부터 다시 써 오라고 하셨다.

“실망스럽다. 부머야. 같은 반 친구들을 무법자 가족이라고 하다니.”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도 허드만 남매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법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캠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그 남매들을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허드만 남매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만약 이 남매들이 옛 서부 시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거기를 다 태워버리든지 폭파시키든지 해서 지금쯤이면 우리가 그 시대를 공부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가 날마다 이 남매들을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날 일 같은 건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보통 허클베리 핀 같은 아이가 아니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개학날을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 그 때쯤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미 여름이 빨리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모기에 물리거나 옷이 올라 가려워 굶는 것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이다. 그세 운동화도 다 닳아 있지만 개학할 때 까지는 새 운동화를 살 엄두도 내지 못한다. 엄마는 우리가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것들을 잘 정리하라고 고함치는 것에 지치셨고, 우린 그런 엄마의 잔소리가 질릴 지경이다.

그리고 개학날에는 오전 수업만 한다.

언젠가 내 남동생 찰리가 선생님들은 학교가 끝나면 하루 종일 뭘 하냐고 엄마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

“선생님들은 교과서나 유인물 같은 수업 준비를 한답니다.”

“르로이 허드만은 다르게 말하던데요.” 찰리가 엄마에게 말했다. “르로이가 그러는데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문을 다 잠그고 피자랑 맥주랑 시켜먹는대요.”

“글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다.” 엄마가 말했다. “그런데 르로이는 그걸 어떻게 알았다니?”

“르로이가 깜박하고 교실에 뭘가 놓고 온 게 있었대요.” 찰리가 말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러 학교로 다시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건 선생님들이 르로이가 오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근 거야.” 엄마가 말했다. “너라면 안 그러겠니?”

음,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랄프, 이모진, 르로이, 클로드, 올리, 글래디스, 이 허드만 남매들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최악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정직하지도 않았고 쾌활하지도, 부지런하지도, 협동적이지도, 그리고 깨끗하지도 않았다. 거짓말은 기본이고, 담배도 피우며, 불을 지르기 까지 했고, 또 어린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욕을 퍼붓기도 했고 원하면 언제든지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나오더라도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허드만 남매들은 개학날이면 항상 학교에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학



교를 휘젓고 다니는 이 남매들과 이번도 함께 다녀야 할 거라는 걸 알게 되곤 하였다.

어쨌든 한 학년에 한 명씩만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리고 이 남매들은 낙제를 당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같은 반에 있는 그 허드만 남매 한 명만 참고 지내면 되었다. 우리 반엔 이모진 허드만이 있었다. 그리고 난 되도록 이모진을 피해 다니려 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번은 이모진이 복도에서 날 붙잡고 오트밀 상자를 불쑥 내민 적이 있었다. 이모진이 말했다. “야, 너 과학 숙제 살래?”

이모진이 생각하는 과학숙제란 아마도 뭔가 폭발하거나 불이 붙거나 냄새가 지독하게 나거나, 살아있어서 날 물거나 해야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오트밀 상자에서는 뭔가가 킁킁거리고 굼히는 소리가 들렸다.

“캠프 선생님이 이미 올해의 숙제를 칠판에 적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 숙제는 과학 숙제가 아니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이모진이 툭툭 거렸다. “그럼 숙제가 뭔데?” 이모진이 오트밀 상자를 흔들었다. “쥐랑 관련된 숙제야?”

내 생각이 반은 맞은 것 같았다. 그 상자 속에 있던 이모진의 과학 숙제는 살아있는 것이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큰 쥐가 아닌 이상 날 물진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그런 걸 알고 싶지도 않았다.

“아니.” 내가 말했다. “사람에 관한 거야.”

“차라리 쥐가 더 나았겠다.” 이모진이 말했다.

그날 캠프 선생님은 점심시간 전에 그 숙제에 대해 설명을 하셨고 나는 이모진의 말이 맞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숙제는 정말 이상한 숙제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번 학년 숙제는 서로에 대해 알아보는 숙제예요. 바로 칠판에 적힌 ‘반 친구 칭찬하기’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교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어 “네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장 써야 되요?”라고 질문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들은 척도 안하셨다.

“방금 말한 것 그대로예요.” 선생님이 말했다. “여러분은 이 반에 있는 친구들

모두에게 해줄 특별한 칭찬을 생각해야 되요. 자, 이제 불평은 그만합시다.”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계속 투덜거렸다. “왜냐하면 이 숙제는 일 년 내내 하는 숙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일 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내년 6월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전에, 모자에서 이름 적힌 종이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리고 그 뽑힌 사람에게 해 줄 칭찬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친구들 대신 유명한 사람에 대한 칭찬을 생각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또 다른 아이는 조지 워싱턴 같은 위인에 대해서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셨다. “이건 학급 숙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부모를 골랐다. “부모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도 자신의 좋은 점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칭찬은 몇 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니어 제이콥스가 질문했다.

“그건 뽑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선생님이 말했다.

앨리스 웬들컨이 손을 들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하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하고는 같은 칭찬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앨리스는 꼭 자기를 칭찬하려고 질문 한 것 같았다. 그래 준다면야 다른 아이들의 고생을 덜어주는 셈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말했다. “앨리스야, 선생님은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나 가지런한 치아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다. 성격이나, 개인의 자질이나, 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을 말하는 거야.”

난 이 숙제가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앨버트 펠프리만 봐도 그렇다. 우리는 앨버트를 떠올릴 때면 똥똥하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앨버트도 자기가 똥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말고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똥똥하다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점을 찾으려면 앨버트를 정말이지 연구라도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앨버트 말고도 연구해야 할 아이들이 이모진 허드만을 합쳐서 28명이나 더 있는 것이다.

“칭찬이란 게 뭐냐?” 이모진이 내게 물었다.

“칭찬은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 좋은 점을 말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히 잘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특히 친절하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야.”

엘리스가 이모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니면 남달리 깨끗하다든가.” 엘리스가 말했다.

“알았어.” 이모진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도 쥐랑 관련된 숙제가 훨씬 더 나왔을 거야.”

허드만 남매들 주위에는 항상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모진에게는 아마도 쥐가 더 쉬웠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 허드만 남매들은 동물들에겐 심술궂지 않았다. 하지만 그 동물들은 원래부터 성질이 못된 동물들이었다. 예를 들면 허드만 남매들이 기르는 고양이처럼 말이다. 그 고양이는 사람들을 물기 때문에 목에 줄을 매어야할 정도였다.

가끔씩 허드만 아주머니가 그 고양이 목에 줄을 매고 동네에서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주머니는 신발 공장에서 2교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거나 고양이를 산책시킬 시간이 많지 않았다.

허드만 남매들은 아빠가 없었다. 모두가 허드만 아저씨는 글래디스가 태어난 후에 화물열차를 타고 마을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글래디스가 태어나자마자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글래디스가 태어난 후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떠났다고 하기도 했다.

“아마 글래디스는 자기 아빠도 물었을 거야.” 엘리스가 말했다.

“아기였으면 물지 못 했을걸?” 내가 말했다. “아기들은 이가 하나도 없잖아.”

“개는 아마 엄청 딱딱한 잇몸이 있었을 거야.” 엘리스는 글래디스에게 많이 물려왔기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와 하는 말이었다. 엘리스의 엄마인 웬들컨 아주머니는 항상 글래디스에게 물린 자국 전체에다 요오드를 펴 발랐기 때문에 엘리스의 팔과 다리에는 커다란 갈색 반점이 며칠 동안이나 남아있었다. 엘리스는 (글래디스에게 물린 자국 때문에) 언젠가는 자기도 죽을 텐데, 그때 주름장식이 달린 파란색과 흰색이 섞인 드레스를 입고 예쁜 모습으로 묻히지도 못하고 온몸이 반점으로 뒤덮여 못생긴 모습으로 묻히게 될까봐 늘 두려워했다.

글래디스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사람만 무는 것은 아니었다. 글래디스는 내 남동생 찰리처럼 아무나 물었다. 어느 날 찰리가 글래디스에게 물렸다면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글래디스도 찰리를 따라왔었는데, 이것만 봐도 허드만 남매들이 얼마나 겁 없는 아이들인지 알 수 있다.

만약 보통아이들 같았으면 어떤 아이를 물어서 그 아이 피부가 찢기고 또 피까지 나면 도망가서 숨어버렸겠지만, 글래디스는 그렇지 않았다.

“글래디스 허드만!” 엄마는 화가 나면 항상 이름을 전부 불렀다. “너 내가 사람들을 무는 여자아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줄까? 그런 아이는 목에 ‘글래디스 조심’이라고 쓰인 팻말을 매달고 다녀야 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 글래디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글래디스는 그냥 “알았어요.”라고 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그 팻말을 만들어 일주일동안 매고 다녔다. 어차피 우리는 그런 팻말이 없어도 글래디스를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팻말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허드만 남매들은, 무엇보다도 옮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훔쳤다. 이 남매들이 옮길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놀라웠다. 단순히 캔디나 껌 또는 게르빌루스 쥐나 금붕어 같은 것만이 아니었다. 심지어 요하네스 아주머니가 금붕어 어항으로 쓰려고 갖고 있던 콘크리트로 만든 새의 물통까지 훔쳤다. 그리고 지난봄엔 슈퍼마켓 앞에서 내 친구 루엘라 맥클러스키의 어린 남동생 하워드를 말도 없이 데려가 버리기도 했다.

물론 하워드는 그 시간에 슈퍼마켓 앞에 있었으면 안됐다. 루엘라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엄마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동안 하워드를 돌봤다. 그리고 그 대가로 루엘라는 50센트를 받았고,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날 우리는 그 50센트를 쓰려고 슈퍼마켓에 갔던 것이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하워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유모차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처음엔 허드만 남매들의 소행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람들은 대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땐 자연스럽게 허드만 남매들의 짓일 거라고 생각했다. 허드만 남매들은 뭔가를 훔칠 때면 항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몽땅 훔쳐갔다. 하지만 이번처럼 아기만 훔치고 유모차를 그냥 두고 간 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루엘라는 하워드가 유모차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유모차를 뒤집고는 그 밑을 찾아봤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워드를 찾아 소리를 지르며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것도 멍청한 것이었다. 어떻게 말도 못하는 아기가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하워드는 건

지도 못하고 잘 기어 다니지도 못했다. 어차피 유모차에서 내릴 수도 없는 아기였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하워드를 데려간 것이 분명해.” 루엘라가 말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내 동생을 데리고 방금 사라 진거야.”

“경찰에 신고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렇게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 미용실에 있는 엄마를 불러야 되잖아.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돼.”

“하워드 없이 집에 혼자 돌아가면 다 알게 될 텐데 뭐.” 내가 말했다.

“하워드 찾기 전까진 집에 안 돌아갈 거야. 생각 좀 해보자. 누가 하워드를 데려갔을까?”

과연 누가 하워드 같은 아기를 데려갔는지 상상이 안 갔다. 심지어 우리 엄마도 하워드를 보고 지금까지 본 아기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아기라고 말했다. 그래도 엄마는 하워드의 머리카락이 좀 자라면 괜찮아 질 거라고 말하기를 했다. 바로 머리카락이 없다는 것이 하워드의 가장 큰 문제였다. 하워드의 머리는 달걀 같은 대머리였는데 맥클러스키 아주머니는 하워드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려고 바셀린으로 하워드의 머리를 계속 문질렀다. 그래서 하워드를 볼 때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곤 빛나는 대머리뿐이었다. 별로 예쁜 모습은 아니었다.

“아마도 아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거야.” 루엘라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었다. 차라리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쉬웠겠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기를 훔칠 이유가 없었다.

그때 루엘라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다. “그냥 여기 주위를 걸어 다녀 보자.” 루엘라가 말했다. “유모차를 밀면서 말이야. 하워드를 본 사람이 우리가 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하워드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 줄 수도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루엘라,” 내가 말했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란 거 너도 알잖아.”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내 남동생 찰리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처음 한 말이 “하워드를 찾고 있는 중이라면, 허드만 남매들한테 가봐.”였다.

루엘라는 한 숨 돌리긴 했지만 별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만약 어린 남동생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과 허드만 남매들 손에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정체불명의 사람들을 택할 테니 말이다.

“하워드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루엘라가 물었다.

“하워드를 보여주는 대가로 아이들한테서 25센트씩 받고 있던데.”

“왜 하워드를 보려고 25센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물었다. “우리는 하워드를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

“허드만 남매들은 아이들한테 그게 하워드인지 말을 안 했어. 그리고 ‘문신을 한 놀라운 아기를 보세요! 25센트입니다.’ 라고 적힌 팻말도 있던데.”

“문신을 했다고!” 루엘라가 비명을 질렀다. “난 이제 엄마한테 끝장났어.”

허드만 남매들이 실제로 하워드 머리에 문신을 새긴 것은 아니었다. 이 남매들은 하워드 머리에 있는 바셀린을 닦아내고 유성 사인펜으로 머리 전체에다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었다.

찰리는 멍청하게도 그 팻말에 속아 넘어갔다. 문신을 한 놀라운 아기를 보려고 25센트를 낸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가 그림 문신을 한 하워드인 걸 알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찰리는 루엘라에게 자기 돈을 찾아달라고 떼를 쓰며 우리 뒤만 계속 쫓아다녔다. 하지만 찰리와 나는, 루엘라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하워드를 다시 데려오는 일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하워드가 갓난아기만 아니었다면 그 아이들한테서 다시 찾아올 생각은 안 했을 거야.” 루엘라가 말했다.

“개네들 벌써 6달러 50센트나 벌었어.” 찰리가 말했다. “개네가 하워드를 이용했으니까 누나도 그 돈에서 얼마쯤은 받아내야 돼.”

“아마도 내가 개네들한테 돈을 쥐야 될 걸.” 루엘라가 투덜거렸다.

루엘라 말이 맞았다. 우리가 허드만 남매들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울타리 밖에 세 네 명의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루엘라는 이모진 쪽으로 걸어가 “야, 내 동생 돌려줘.”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모진은 못 들은 척하며 계속 돈을 걸었다. “문신 한 아기를 보려고

왔나?” 이모진이 루엘라를 향해 돈이 든 상자를 흔들어 댔다. “그럼 25센트 내.”

“그 아기 문신 한 아기 아니잖아.” 루엘라가 말했다. “걔 내 남동생이야.”

이모진이 루엘라를 쳐다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그냥 알아.”

“넌 몰라. 이 아기는 딴 사람 아기일 수도 있거든. 네가 전혀 모르는 아기일 수도 있어. 알고 싶으면 25센트나 내라고.”

더 말할 것도 없이 그 아기는 하워드였고, 그 모습은 정말 볼만했다. 하워드의 머리 위에는 개, 고양이, 나무 그리고 틱택톡 게임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으로 그려져 있었다.

“난 네가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르로이가 말했다. “내가 볼 땐 전보다 훨씬 괜찮아 보이는데.”

르로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하워드가 더 흥미로운 모습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맥클러스키 아주머니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하워드를 데리고 나와 우리 집으로 갔다. 그리고 하워드의 머리를 씻기려고 했는데, 그제 서야 그 그림이 전부 유성 사인펜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어떡하지?” 루엘라가 물었다.

“누나네 엄마한테 허드만 남매들이 했다고 말해.” 찰리가 말했다.

“그럼 엄만 나더러 왜 개네들이 그렇게 하도록 나뒀는지 물어볼 거고, 처음에 개네들이 어떻게 하워드를 발견했는지도 궁금해 할 거야. 비누칠이라도 해봐야겠어.”

우리는 하워드 머리에 별의별 것들을 다 발라봤다.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었던 건 광택 세제뿐이었다. 그나마 이것도 그다지 큰 효과가 없었다. 그 세제로 하워드의 머리는 까끌까끌 해졌고 보라색이 다 지워진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워드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그 상태로 눈을 가늘게 떠서 보면...그 보라색이 핏줄처럼 보이지 않니?” 루엘라가 말했다.



내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근데 어쨌든 나는 그게 뭔지 알지만 네 엄마는 그게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엄마한테는 그게 핏줄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내가 루엘라에게 말했다.

하지만 맥클러스키 아주머니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맥클러스키 아주머니는 너무 화가 나서 구토성 두통을 앓았고 눈에 반점까지 생겼으며 결국 이를 동안 드러누워 있어야 했다. 아주머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처음으로 한 일은 하워드의 머리에 남아있는 보라색을 지우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에, 아주머니는 하워드의 머리 두세 군데에서 부드러운 솜털을 발견했다.

맥클러스키 아주머니는 그 후론 더 이상 허드만 남매들에게 화가나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하워드 머리의 그림이나 사인펜이나 잉크, 둘 중 하나가 하워드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루엘라에게는 화가나 있었다.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어찌 되었든 그 광택세제가 머리카락을 자라게 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얘기를 엄마에게 했는데, 말 하자마자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무슨 광택세제였니?”라고 말하고 나서 “베스 브래들리, 일로와! 어떤 광택세제를 쓴 거야?”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하워드의 머리에 광택세제를 바른 죄로 벌을 받았고, 루엘라는 슈퍼 앞에 하워드를 내버려 둔 죄로 벌을 받았다. 그리고 찰리는 다음 주 까지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파는 막대 초코후피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면 안 되는 벌을 받았다.

“엄마는 그 아이스크림 사먹으라고 너한테 25센트를 준 거야.” 엄마가 찰리에게 말했다. “다음번엔 이상한 거 사려고 돈 낭비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렴.”

물론 하워드 머리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자라긴 했지만, 하워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라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허드만 남매들은 6달러 50센트나 벌었다.

흠친 아기 머리 위에 온통 낙서를 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보여준 게 허드만 남매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평생을 집에 갇힌 채 살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바로 허드만 남매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맥클러스키 아주머니에게 하워드를 그 아이들에게서 무사히 돌려받기만 해도



아주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다.

사실 허드만 남매들을 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 남매들이 퍼스트 내셔널 은행을 털려고 하거나 공공도서관에 불을 지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남매들과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더욱이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에 다니고 이모진과 같은 반인데다, 이번 학년이 끝나기 전에 이모진의 좋은 점을 찾아야 하는 아이라면 더더욱 그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은 엘리스의 엄마처럼, 허드만 남매들이 어린아이들이지만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동네 감옥은 시청 지하에 있는 방 두 개짜리 감옥이다. 글래디스와 올리 허드만이 시청에 있는 식수대에 개구리를 풀어놓은 사건 때문에 허드만 남매들은 시청에 들어 갈 수 없었다. 그 개구리들은 아주 작은 개구리였는데 시청 직원인 팔리씨가 분수대 수도꼭지로 물을 마시다 실수로 그 개구리 두세 마리를 먹은 적이 있었다. 팔리씨는 그때 안경을 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팔리씨, 그만! 지금 개구리를 마시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전까진 개구리를 먹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팔리씨의 반응은 거의 발작 수준이었다. 그녀는 개구리들이 목안에서 위아래로 팔짝팔짝 뛰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글래디스와 올리를 잡으려고 동네 이곳저곳을 쫓아다녔다. 그리고 허드만 남매들 중 한명이라도 시청 안에 있는 걸 또 발견 한다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그 아이들 발뒤꿈치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재빨리 쫓아가 혼을 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연히 허드만 남매들은 이 말에 개의치 않았다. “근데 왜 그 여자는 우리 개구리를 먹은 거야?” 글래디스가 말했다. “그 여자가 개구리를 먹은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이제 그 여자 뱃속에 사마귀가 생길 거야. 근데 뱃속이니까 굶지도 못할 거야.”

“사마귀는 가려운 게 아니야.” 엘리스가 글래디스에게 말했다.

“그 사마귀는 가려울 거야” 글래디스가 말했다. “덩굴 옷나무가 있는데서 그 개구리들을 잡았거든.”

우리 마을에서 허드만 남매들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쓰고 엄마를 부르는 등 이런 것들이 모두 금지된 곳은 시청만이 아니었다. 약국이나 영화관이나 에이엔피(A&P)나 테이스티 런치 식당(Tasti-Lunch Diner) 모두 허드만 남매들에겐 금지구역이었다.

허드만 남매들은 우체국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다. 한번은 누군가가 허드만 남매들의 학교 증명사진을 구해다가 ‘현상 수배’ 포스터 바

로 옆에 붙인 적이 있었다. 그런데 허드만 남매들의 사진이 그 포스터와 함께 있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올리 허드만이 우체국장인 블레어 아저씨를 찾아가 자기 형인 클로드를 잡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볼 때 까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블레어 아저씨가 말했다.

“어떤 현상수배자 현상금은 500달러정도 하잖아요.” 올리가 말했다. “제가 클로드를 잡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어 아저씨는 올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러 갔는데 물론 거기에는 허드만 남매들의 사진이 은행 강도와 폭탄 테러범 현상수배 포스터 옆에 걸려있었다.

블레어 아저씨는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너희 사진이 여기에 걸려있는 거지? 네가 이 사진들을 걸었니?” 블레어 아저씨가 말했다.

올리는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자기도 그 사진들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그래, 나도 놀랍구나.” 블레어 아저씨가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FBI(미국연방수사국)는 네가 클로드나 너네 허드만 남매들 중에 누구를 잡아온대도 돈 같은 것은 주지 않을 거야. 근데 왜 클로드를 잡겠다고 생각했지?”

“이미 클로드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올리가 말했다.

나중에 블레어 아저씨는 올리의 이 말에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 개가 클로드를 어느 나무에 묶어놨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블레어 아저씨는 길모퉁이에 있던 경찰 아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경찰 아저씨는 허드만 남매들이 예측 불가능한 아이들이라 조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 경찰 아저씨는 굳이 조사하러 멀리 가볼 필요도 없었다. 반 블록을 지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올리가 수노코 주유소 남자화장실에 클로드를 가둔 것이었다.

경찰 아저씨가 거기에 도착했을 땐 클로드는 화장실문을 두드리며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사우스다코타에서 온 대가족이 그 화장실에 들어가고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아주머니가 제일 청결하다는 수노코 주유소의 화장실을 찾아 거의 150마일을 달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화장실이 깨끗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가 그 허드만 남매 중 한 명에게 열쇠를 줬어요.” 주유소 매니저가 말했다. “그 아이가 열쇠를 갖고 가버렸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열쇠를 줬는지, 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진찰 받아봐야겠어요.”

“근데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열쇠가 필요 없잖아요.” 경찰 아저씨가 말했다. “클로드가 그냥 문을 열면 되지 않나요?”

“못해요.” 클로드가 소리쳤다. “문이 꿈쩍도 안 해요.”

나중에 올리는 자기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클로드를 남자화장실이나 다른 곳에라도 가둘 계획은 없었고, 단지 그 문이 딱 단혀 꿈쩍도 하지 않아서 도움을 구하려고 간 것이고, 그 때 우체국에 걸린 사진을 보았던 것이라고 시치미를 뚝 떴다.

“도움을 청하려고 우체국까지 갔다고?” 매니저가 물었다.

“이모진 누나를 찾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네 누나가 우체국에 있었니?”

“아니요.” 올리가 말했다. “거기 없었어요.”

허드만 남매들은 이렇게 거짓말이긴 했지만 딱히 뭐가 거짓말인지 집어낼 수 없는 수법을 쓰며 변명을 잘 하곤 했다.

물론 이건 모든 것이 다 마무리 된 후에 일어난 일이다. 한편 블레어 아저씨와 수노코 주유소 매니저는 소방서에 전화해 화장실에 갇힌 클로드를 꺼내달라고 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던 사이에 사우스다코타 가족은 떠났고, 기름을 넣으려던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쳐 다른 주유소로 가버렸다. 또 이런 난리 통에 어떤 사람은 자동차 오일 두 통과 렌치를 훔쳐 가버렸다. 아마 그것도 허드만 남매들의 짓이었겠지만 올리가 돈 때문에 정말로 클로드를 FBI에 넘기려고 했는지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런 이유로 허드만 남매들은 우체국과 수노코 주유소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또 허드만 남매들은 새 빨래방이 처음 문을 연 날 쫓겨난 적도 있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목욕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세탁기를 쓰려면 돈을 내야하는 것을 알고는 세탁기에 고양이를 넣은 채 25센트짜리 동전을 찾으러 나가버렸다.

세탁기 안에 갇힌 고양이는 당연히 답답해 썩썩거렸고 으르렁대며 굽는 소리를 심하게 냈다. 이 소리를 들은 빨래방 매니저인 클리브랜드 아저씨는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했다.

“전기가 합선 된 줄 알았어요.” 클리브랜드 아저씨가 말했다. “아니면 전기 쪽에 연결부위가 헐거워진 줄 알았죠. 그런 소리 같았거든요.”

사람들은 분명히 전기 문제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 아저씨가 세탁기 뚜껑을 열자 꼬리와 귀뿐만 아니라 털까지 곤두선 고양이가 총알같이 뛰쳐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고양이는 세탁기 위를 이리저리 짹짹거리며 손님들의 세탁바구니를 다 굽어놓았다. 그리고 비누박스, 표백제 병들과 ‘번창하세요.’ 라고 적힌 큰 꽃바구니를 넘어뜨렸다.

마침내 누군가가 빨래방 문을 열자, 식탁보를 온 몸에 두른 고양이는 으르렁거리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것이 이 고양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후 빨래방 안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물론이었고, 손님들도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손님들은 자기 빨래가 어느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데다, 그 고양이가 물건들을 죄다 엎지르고 갔다며 클리브랜드 아저씨에게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고양이털과 세제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은 이내 재채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고양이 알레르기 때문에 몸에 커다란 붉은 반점들까지 생기기도 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아저씨는 상황이 다 정리될 때까지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하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다. 길 건너 산토로 피자 가게 주인인 산토로 아저씨는 길 건너 빨래방에 있던 사람들이 재채기와 기침을 하고 객객거리며 떴어 나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에요? 불났어요?”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니요, 고양이털이요.”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산토로 아저씨는 그것을 “공기가 탁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새로 설치한 가스관에 이상이 생겼거나, 어쩌면 가스 누출사고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길 위쪽으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폭발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니 아무도 가까이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아저씨의 경고를 들은 몇몇 사람 중에는 세탁기에 넣을 50센트를 갖고 돌아온 허드만 남매, 이모진과 랄프, 그리고 르로이도 있었다.

“거기 애들은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산토로 아저씨가 말했다. “이 빨래방이 폭발할 수도 있어!”

이 말에 그 아이들은 꽤나 놀랐던 것 같다. 자기네 고양이가 뭘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눈치 챌 듯 했지만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몰랐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빨래방을 폭파시킬 정도로 똑똑하다면 거기서 이미 빠져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산토로 아저씨는 소방서에 전화를 했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곧 도착했다. 하지만 그곳엔 당연히 불이나 가스 누출 같은 건 없었다. 그때쯤에는 그 고양이도, 허드만 남매들도 거기에 없었으며 단지 매우 화가 난 손님들과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러 돌아다니고 있는 신문기자 한 명만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인지 신문기사도 꽤 알쏭달쏭한 내용이였다. 신문기사 제목은 다음과 같았다. ‘이상한 소동으로 빨래방 개업식 망치다. 소방관들, 화재라는 익명의 제보에 출동했으나 손님들은 들짐승이 한 짓이라고 말해.’ 이 기사를 보고 아빠는 손님들이 들짐승이라고 말한 것은 어쨌든 맞는 말이라고 했다.

클리브랜드 아저씨는 어질러진 것들을 다 치우고 손님들의 물건을 새 걸로 교체해줘야만 했다.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온 몸에 반점이 생기자 그 아주머니가 알레르기 주사를 맞는 비용도 내줘야만 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아저씨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산토로 아저씨도 소방대원 아저씨들이 자신을 ‘익명의 제보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다. 또 당연히 소방대원 아저씨들도 그 일이 무슨 일이었든지 간에 허드만 남매들의 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한편 허드만 남매들은 집에서 고양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고양이는 식탁보를 온 몸에 감싸고 있어서 평소보다도 더 미친 고양이 같았는데, 동네 곳곳에서 날뛰고, 울부짖고 으르렁거렸으며 자기 앞을 가로막는 것은 다 할퀴어버렸다.

그 고양이는 또 이발소에도 달려 들어가 페리 아저씨가 면도 중인 손님이 앉아있는 의자 위로 쏜살같이 올라갔다.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죠. 그래서 전 실수로 그 고양이에게 비누 거품 칠을 해버렸어요. 손님한테 거품 칠 해 줄 것을 그 고양이에게 했지 뭐예요.” 페리 아저씨가 말했다.

그 후 그 고양이는 영화관 로비 안으로 들어가 팝콘을 주워 먹었다. 이때 쫓겨오니 그 고양이가 원래 무슨 동물이었는지, 아니면 동물이긴 했던 건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었다.

마침내 이 고양이는 도서관 앞에 있는 나무 위로 겨우겨우 올라갔다. 그걸 본 도서관 사서인 그레브너 씨는 고양이를 내려달라고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다.

“고양이가 맞는 같아요.” 그레브너 씨가 말했다. “근데 이 고양이는 무슨 전쟁터에 갔다 온 것 같아요.”

“아니예요.” 소방서 대장님이 말했다. “세탁기 속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년 중순까지 그 나무 위에 있어도 될 것 같네요.” 물론 그레브너 씨는 이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이 일로 화가 나지 않은 사람들은 허드만 남매들 뿐이었다. 마침내 이 고양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비누 거품 칠로 매우 깨끗해 졌고 털도 보송보송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허드만 남매들의 본래 목적이었다.

우리 엄마는 허드만 남매들이 매일같이 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당연히 허드만 남매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는 허드만 남매들에 대해 불평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은 불평을 아주 잘하는 앨리스의 엄마한테 맡겼다고 말했다.

앨리스의 엄마인 웬들컨 아주머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허드만 남매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앨리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글래디스가 앨리스를 물어 죽게 만들면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쓸모없게 되는지 외에 웬들컨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두 번째 수다거리이었다.

항상 웬들컨 아주머니는 앨리스에게 주인공 요정이나 대장 난쟁이나 ‘길거리 대청소’ 포스터 소녀 같은 주인공 역할을 하도록 시켰다. 상공회의소에서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기증했을 때 한 사진이 신문에 실렸는데, 말할 것도 없이 앨리스가 인공호흡기를 쓴 모습이 실려 있었다.

웬들컨 아주머니는 이번엔 자기가 시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진사가 그냥 주위를 둘러보더니 “거기 예쁜 소녀가 인공호흡기를 갖고 포즈 좀 취해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웬들컨 아주머니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앨리스도 이번 일에 대해 아무한테도 박수를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진을 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가만히 자기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다. 쉬는 시간에 앨리스는 이모진에게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모진이 한번 보고는 “당장 저리가! 내 몸 만지지마!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싫어!”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서 양호선생님이 앨리스가 천연두 같은 병에 걸린 줄 알고 급히 뛰어왔다.

또 이모진이 지른 소리에 학교 운동장에 있던 아이들도 재빨리 도망가 버렸다. 허드만 남매들은 일반 세균 같은 것에 꿈쩍도 않는데, 이모진이 건들기 무서워하는 것이라면, 자기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드만 남매들은 볼거리나 유행성 결막염이나 감기나 복통 것에도 절대 걸리지 않았다. 한번



은 르로이가 뱀에 물렸었는데 르로이의 다리가 약간 부어오른 것 말고는 다른 증상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그 뱀은 죽었다. 르로이는 그 뱀을 학교에 갖고 와서 선생님들의 물품 보관실 형광등 줄에 그걸 위 아래로 묶어뒀다. 그리고 5분정도 지나자 유치원 선생님인 뉴먼 선생님이 들어와 그 줄을 잡아당겼다.

그 날 뉴먼 선생님은 빨간색 물감이 든 병을 들고 자기를 도우러 온 6명의 유치원생들과 함께 있었는데, 뉴먼선생님이 지른 비명 소리에 아이들은 모두 그 병을 떨어뜨렸고 안에 있던 물감은 사방으로 다 튀어버렸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실수로 분필 두 통을 넘어뜨렸고, 아이들은 분필을 밟으며 돌아다녔다. 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수위 아저씨가 달려와 문을 열어 상황을 살펴보고는 곧장 교장선생님을 부르러 갔다. 아저씨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물품 보관실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보아하니 사람들이 전부 부상을 입어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보고했다.

교장선생님이 거기 도착했을 때에는 뉴먼선생님은 정신을 차려 아이들을 세면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쉬는 시간 종이 울렸다.

그러자 그 복도는 아이들과 선생님으로 가득 차버렸다. 다들 뉴먼선생님에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 생겼어요?”라고 물었고 교장선생님은 모두에게 “비키세요. 빨리 비키세요. 여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라고 말했다. 물론 그 복도에는 우리가 역사시간에 읽었던 어린이 대학살과 같이 큰 재앙이 닥친 것처럼 구경할 거리가 많이 있었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르로이는 아무렇지 않게 그 물품 보관실로 걸어 들어가 그 뱀을 풀고는 주머니 속에 넣고 유유히 다시 밖으로 나왔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교실로 들어간 후에 교장선생님과 뉴먼 선생님, 그리고 수위아저씨와 남자 농구팀 코치선생님은 물품보관실 바닥을 기어 다니며 그 뱀을 찾아 다녔다. 그리고 뉴먼선생님은 “정말로 형광등 줄에 뱀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무도 르로이의 주머니 속을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결코 그 뱀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 뱀이 프로이를 물고 죽었는데 왜 프로이는 죽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아빠한테 물어보았다. 아빠는 아마도 프로이가 더 부풀려서 얘기 했을 거라고 말했다. “뱀이 프로이를 문 건 맞아.” 아빠가 말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프로이가 이미 죽은 다른 뱀을 찾아 학교로 갖고 갔을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

엄마는 그건 틀림없이 뱀이 아니었고 그냥 프로이가 불쌍한 지렁이를 여러 개 묶어서 만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프로이가 말한 대로 원래 그 뱀은 아주 건강한 뱀이었는데 자기를 물자마자 바로 죽었다는, 프로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말했을 진실을 믿기로 했다. 어떻게 보면 웬들컨 아주머니가 엘리스의 몸 전체에 요오드를 바른 것은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엘리스도 이런 치료에 대해 그만 떠들고 그 뱀처럼 죽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도 모른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삼일 후 프로이는 3학년 연필깎이에 그 뱀의 꼬리를 끼워두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그 반 담임선생님은 거의 실신할 뻔 했다. 그 선생님은 연필깎이에 뱀이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격적인데 하마터면 그 뱀을 깎아 버릴 뻔 했다고 말했다.

이때쯤 그 뱀은 거의 다 너털너털 해진 상태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뱀을 던져 버렸지만 3학년 학생들은 그 주 내내 그 연필깎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 친구인 필립스 아주머니는 복지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 중 하나는 허드만 남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프로이가 뱀에 물린 것 때문에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필립스 아주머니에게 말해주었다. 그런데 필립스 아주머니는 프로이에게 통하는 주사가 과연 있거나 한 건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그 죽은 뱀만 불쌍하게 여겼다.

“내가 한번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차고에 갔었어.” 필립스 아주머니가 말했다. “근데 집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간신히 그 마당에서 살아서 빠져나왔어. 마당 여기저기에 돌, 덩굴 옷나무, 다 떨어진 자전거하고 자동차 부품들, 그리고 개네가 파는 엄청 큰 구멍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잘못하다가 그 구멍 하나에 빠졌지 뭐야. 근데 그 집 고양이가 창문에서 뛰쳐나와 내 머리위에 올라왔더라고. 그때 내가 모자를 썼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안 그랬으면 대머리

가 됐을 거야. 요즘엔 한 달에 한 번 차타고 그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그 애들 때문에 폭파되거나 불에 타지 않았다면 다 잘 지낸다고 생각해.”

“근데 그 뱀에 물린 상처 말이야.” 엄마가 말했다. “이건 좀 드문 일인 것 같지 않아?”

“응, 분명 흔치않은 일이야.” 필립스 아주머니가 말했다. “허드만 남매들 중 한 명이 누굴 문 것이 아니라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야.”

이 모든 소동은 신문에 ‘우드루우 윌슨 초등학교에서 파충류가 발견됐다.’라고 실렸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 말은 뉴먼 선생님과 유치원 아이들을 말하는 것 같았다. 또 ‘학부모들, 대처 방법을 찾고 있다.’는 허드만 남매들을 퇴학시키거나 체포할 방법을 찾고 있는 웬들컨 아주머니를 가리키는 말 같았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 주변 수색하다.’는 3학년 교실 안으로 고개를 내밀어, 만약 한 번 더 학교에서 뱀이 발견될 시에는 그 뱀을 죽여 껍질을 벗기고 요리한 후에 그 뱀을 풀어놓은 학생에게 먹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교장선생님을 가리키는 말 같았다.

이런 교장선생님의 말로 르로이가 집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르로이가 그 반에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모진은 르로이가 그 뱀을 땅에 묻으려고 집에 있었다고 말했고 ‘르로이가 장례식에 가야해서 결석합니다.’라고 아무렇게나 쓴 메모지를 갖고 있었다.

“이모진, 정말 안됐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거니? 너는 왜 장례식에 안 간 거야?”

“르로이 친구 장례식이었어요.” 이모진이 말했다. “난 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웬들컨 아주머니는 이 모든 소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르로이의 뱀이었다는 사실이 그 기사 없어서 매우 화가 났고, 교장선생님까지 이것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에도 몹시 화를 냈다.

“저는 그 뱀이 누구 것이었는지 증명하지 못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그리고 설사 제가 그걸 증명 할 수 있다고 해도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뱀은 보아 뱀도 아니었고 일단 죽어있었잖아요.”

웬들컨 아주머니는 르로이를 정말로 체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당연히 르로이가 갖고 온 뱀이었어요! 그 뱀이 르로이 거란 걸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안 그러면 르로이가 그걸 왜 묻었겠어요? 르로이가 왜 다른 사람의 뱀을 묻겠어요?”

“모르죠.” 교장선생님은 그 뱀이나 르로이뿐만 아니라 웬들컨 아주머니에게도 이미 질릴 대로 질려 있었다. “근데 만약 르로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뱀을 물어줬다면 개가 난생처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준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러시죠?”

웬들컨 아주머니가 이 이야기를 우리 엄마한테 해주지 않았고, 우리엄마가 또 이걸 필립스 아주머니한테 말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필립스 아주머니는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허드만 남매들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명은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그 뱀에 관련된 건데요.” 필립스 아주머니가 입을 때자마자 교장선생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그 뱀에 관련된 얘기는 듣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르로이는 이달의 모범생 상을 받았고 그 상에는 ‘친절한 행동을 한 학생에게’라고 적혀있었다.

당연히 이것은 모든 아이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르로이에게는 특히 더 놀라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에 우리학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선행 점수와 좋은 성적을 갖고 있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숙제를 하고 결석 한 번 없이 개근했으며, 평생 이달의 모범생 상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던 엘리스에게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르로이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게 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필립스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그 이유를 말해주었다.

엄마가 말했다 “르로이가 뱀을 물어줬다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필립스 아주머니가 말했다.

“내가 그 뱀이었다면 르로이가 한 일이 친절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냥 르로이가 그 상을 받으면 그에 걸 맞는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필립스 아주머니가 설명했다. “르로이가 딴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

엄마는 그런 일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르로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상을 받는지도 모를 거야.”

“르로이가 묻은 것도 아니에요.” 찰리가 엄마한테 말했다. “이모진이 그냥 르로이가 했다고 말한 거 예요. 뱀을 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수위아저씨가 쓰레기 처리기에 그 뱀을 던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거라.” 엄마가 말했다. “웬들컨 아주머니가 알면 계속 떠들고 다닐 거야.”

르로이에 대한 엄마의 말은 맞았다. 르로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모범생 상을 받게 됐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찰리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자, 찰리를 쓰레기 처리기 통해 목까지 파묻었는데, 수위아저씨가 그 처리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찰리를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찰리를 전부 묻지 않고 목까지만 묻었다고 르로이가 변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르로이는 달라지지 않았다.

스프레이그 수위 아저씨는 더 이상 쓰레기 처리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아저씨는 쓰레기 처리기나 허드만 남매들, 둘 중 하나만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교장 선생님께 말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전 하루 종일 가만히 서서 쓰레기 처리기만 지킬 수 없습니다.” 아저씨가 말했다. “허드만 남매들은 여섯 명이고 전 혼자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청소를 하러 지하실에서 나갈 때마다 그 아이들은 지하실로 뭔가를 던지죠.”

이런 허드만 남매들은 4학년용 개미사육 상자와 플라스틱 공룡 전시품을 부신 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리고 르로이는 모범생 상패는 먹지도, 그렇다고 맞바꾸어 사거나, 팔지도 못한다는 걸 안 순간 앞장서서 그 상패도 부셔버렸다.

엘리스는 이 사실을 자기 엄마에게 말했고, 웬들컨 아주머니는 이런 상황에 너무 진저리가나 학부모회를 그만 두었다. 우리 아빠는 웬들컨 아주머니가 학부모회에서 나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물론 웬들컨 아주머니가 솔직하게 “모두에게 너무 화가 나서 탈퇴해요.”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냥 엘리스가 학부모회 장기자랑에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장기자랑을 심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웬들컨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장기자랑에 내보낼 만한 장기가 있는 자녀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엄마는 심사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우리가 장기가 없다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거기 나가지 않는다는 거야?” 찰리가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둘 다지.”라고 대답했다.

사실 장기자랑에 내보낼 만큼 재능 있는 자녀를 둔 엄마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엄마들은 장기자랑에 내보낼 아이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리저리 찾아 다녀야 했다. 그래서 포스터에 “천개 별들의 밤! 가족 엔터테인먼트의 저녁! 학부모회 장기자랑!”이라고 적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천개 별들의 밤이 아니었다.

아빠는 장기자랑 포스터의 목차를 보고서 장기자랑 보다는 간식을 더 신경 써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휴식시간에 간식은 없을 거 예요.”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이건 단순히 가족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저녁이에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그 간식이 준비되면 다르지.”

그날 저녁 엄마는 쿠키와 브라우니, 그리고 컵케이크와 편치를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모았다. 엄마가 장기자랑 목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본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포스터에는 ‘천개의 별들의 밤! 가족 엔터테인먼트의 저녁! 학부모회 장기자랑!’과 “맛있는 간식 제공!”이라는 문구가 뽁뽁이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걸 큰 실수였다. ‘간식제공’은 허드만 남매들이 유일하게 이해하는 긴말 이었고 이 남매들은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먹을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는 못할 거야.” 앨리스가 말했다. “간식을 먹으려면 장기자랑에 나와야 되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런 장기가 없잖아.”

“흠치는 건 할 수 있지.” 찰리가 말했다.

앨리스는 우리엄마가 햄스터 우리의 바닥을 보듯이 찰리를 쳐다봤다. “그건 장기가 아니야.” 앨리스가 말했다.

그걸 장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허드만 남매들은 그 누구보다도 잘 흠쳐냈다. 하지만 허드만 남매들은 흠칠 만 한 것들은 다 흠쳤기 때문에 관객들 앞에서 이 남매들이 어떻게 흠치는 것을 보여 줄지, 이걸 장기자랑에 넣는다면 뭐라고 제목을 정해야하는지, 또 뭘 흠칠지는 알 수 없었다.

작년 10월 4일 허드만 남매들이 결석 한 날, 식목일 행사를 치른 적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은 허드만 남매들이 식목일에 쓸 나무를 흠쳐서 심을 나무가 없었지만, 올해는 겨울동안 나무들이 죽더라도 그나마 나무라도 심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교장선생님은 말했다.

“그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장기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삼일 후, 글래디스는 유치원에 있는 어린이용 가위를 가져다가 유진 프레스턴의 머리를 개 모양으로 잘라버렸다. 그런데 그 모양은 보기에 따라 고양이 같기도, 말 같기도, 어찌면 돼지 같기도 했다.

유진의 머리 위에서 보면 그 동물 모양이 보이는데, 유진이 2학년이나 1학년, 심지어 유치원생을 통틀어 가장 키가 작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노력을 기우리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모양을 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진은 아이



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없이 우리가 마음 놓고 머리를 잘라 버려도 될 아이를 고르라면 유진이 뽑힐게 뻔했다.

물론 유진은 주위에서 자기가 가장 키가 작다는 것만으로 이미 신경이 예민해질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야, 땡칠이!”나 “야, 땡꼬마!”라고 부르는 건 유진의 신경을 안정 시켜 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만약 유진의 머리가 자기키처럼 자라지 않는다면 유진은 아마 몇 년 동안 그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 것이다. 어쨌든 유진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개라고?” 아빠가 이 얘기를 듣고 말했다. “개 모양 같다니 말도 안 돼. 누가 개모양이래?”

“미술선생님이요.” 찰리가 말했다. “선생님이 교장선생님께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선생님은 그 모양이 유진의 머리위에 있지만 았았다면 살아있는 조각상의 모델로 전시했을 거겠어요.”

“왜 유진에게 그걸 말해주지 았았니?” 엄마가 말했다. “자기가 살아있는 조각상이란 걸 알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았았다. 살아있는 조각상이 어떤 건지 아는 아이들이 아무도 았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유진이 백과사전에서 살아있는 조각상에 대해 찾아보는 걸 도와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조각상’에 대해 찾지 았고 ‘살아있는’에 대해 찾다보니, 고문을 당하는 ‘살아있는 제물’만 나온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당연히 이걸 보고 유진의 기분이 좋아질 리가 았었다.

“유진, 제발.” 내가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만. 누가 널 제물로 바치겠어.”

“왜 았어!” 유진이 말했다. “글래디스 허드만이 았잖아!”

유진은 그런 일이 일어날 까봐 매우 걱정했다. 그리고 키가 작다는 콤플렉스와 웃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경련을 일으켰고 썰룩대거나, 손톱을 물어뜯고, 자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어쩔 수 았어.” 유진이 말했다. “이러다 보면 기분이 나아져.”

사실 우리학교 아이들은 모두 썰룩거리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머리카락을 꼬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고 았었다. 부머 말론은 연필 끝의 지우개 부분까지 연필을 씹다가 이가 부러진 적도 았었다. 또 몇몇 아이들도 할 일이 았을 때 자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물론 허드만 남매들은 다른 아이들의 머리를 때렸다. 하지만 유진처럼 자기 머리를 세계 때리는 아이는 없었다.

클래디스는 이런 유진의 모습을 흥미롭게 쳐다보았다. 더 이상 클래디스는 유진을 때리지 않았고, 유진에게 소리치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유진의 뒤만 쫓아다녔다. 우리는 클래디스가 유진이 녹초가 될 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항상 왜 그러는 거야?” 클래디스가 유진에게 물어봤지만 유진은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유진은 만약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져.”라고 말하면 클래디스가 자신을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리고서는 자기는 착한 일을 했다고 고집 피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유진도 장기자랑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민을 잊게 해 줄 거야.”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유진에게도 숨은 장기가 있을지도 몰라.”

난 유진이 무대에 올라서서 작은 키를 자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장기자랑에서 작은 키를 보여주는 게 장기자랑이 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랑 다른 아이들은 유진이 장기자랑에 나온다는 걸 듣고는 유진이 무슨 숨겨진 장기를 갖고 있기에 장기자랑에 나오나 하고 매우 놀랐다.

“그 다음에는 아마 TV에도 나올 거야.” 클래디스가 말했다. 유진의 장기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클래디스 였다. 하지만 클래디스는 그 장기가 뭘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유진에게도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진의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시켰다. 그래서 유진의 엄마인 프레스턴 아주머니는 무대의상을 준비해야 할지, 기타를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키높이 구두라도 준비해 두어야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우리 엄마도 유진의 무대를 어떻게 장식해 주어야 할지 몰랐다. “마이크가 필요할거야.” 엄마가 말했다. “음악이라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유진의 무대가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는데, 뭘 보여 줄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는 유진이 장기자랑에서 일등을 한다면 환상적일 거라고 말했다.

즉, 엄마의 속마음은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엘리스가 아닌 다른 아이가 일등을 하면 멋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팔이 부러져 엘리스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지 않는 한 일등은 따 놓은 당상이었다.

그래도 찰리는 자기에게는 말 해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진에게 장기자랑 무대에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다.

“유진이 호두가 필요하대요.” 찰리가 알렸다. “근데 자기가 알아서 갖고 오겠대요. 갖고 오기 싫어도요. 유진은 장기자랑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글래디스가 더 무서운가 봐요.”

“호두를 갖고 뭘 한다고 하더니?” 엄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걸로 저글링을 할지도 모르죠.” 찰리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좋을 거예요! 하다가 몇 개 떨어뜨리면 더 좋고요!”

유진이 저글링을 할 줄 알았다면 이미 우리가 다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쩌면 유진이 뽕뽕 숨겼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를 테면 내 친구 베티처럼 말이다. 베티는 이중관절이 있어서 얇은 채로 몸통을 짜배기 모양으로 비틀 수 있지만,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유진도 이렇게 숨겨 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난 어쩌면 유진이 장기자랑에 못나가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장기자랑이 열리던 그날 밤, 유진은 무대에 나타났다. 당연히 우리는 이번 장기자랑만은 뭔가 특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다.

대개 장기자랑은 뭔가 특이하거나 놀라운 것들로 꾸며지지 않았다. 한번은 버니스 포츠라는 여자아이가 동물 장기를 보여준다고 신청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동물이 금붕어였다. 특이한 것은 맞았지만 그 장기라는 것이 버니스가 금붕어에게 말을 하면 금붕어가 대꾸를 하고, 그 금붕어가 한 말을 버니스가 다시 관객들에게 통역하는 것이었다. 찰리는 이 무대를 정말 좋아했는데 당시 찰리는 1학년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었다.

웬들컨 아주머니는 이 장기가 인간과 관련된 재능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자랑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 금붕어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그 금붕어가 재능이 있다는 말이지 버니스가 재능이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말했다.

엘리스의 말에 따르면 웬들컨 아주머니는 유진이 호두로 저글링을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면 말이야.” 엘리스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유진은 저글링을 할 생각도 없었다. 엄마가 유진을 소개하는 동안 유진은 호두를 담은 큰 그릇을 갖고 무대로 나왔다. 엄마가 말했다. “다음 장기자랑은 2학년 학생 순서입니다. 유진 프레스턴 학생입니다. 유진이 보여줄 무대는...”

엄마는 이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유진이 깎 수 있는 대로 재빠르게 호두를 하나씩 이마로 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호두 껍데기가 여기저기로 튀었다.

객석 뒤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유진이 뭘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앞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유진이 하는 것을 직접 보면서도 자신의 두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뒤쪽 열에 앉아있던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이 유진에게 뭘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무대로 걸어갔다, 호두 깨다가 유진의 머리가 박살나기 전에 아무나 멈추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서있던 프레스턴 아주머니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주머니의 말을 듣지 못했다. 너무나 소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펄쩍펄쩍 뛰었고, 박수에 맞춰 “유진 짱! 유진 짱!”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망치머리 잘한다! 망치머리 잘한다!”라고도 소리쳤다. 부머는 호두 개수를 세기 시작했다. “스물두 개, 스물세 개, 스물네 개...” 마흔 다섯 개째 호두가 박살났을 때 프레스턴 아주머니가 기절했다고 부머가 말했다. 그렇다고 아주머니가 진짜 기절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었고 아주머니는 “머리가 다 박살나겠어.”라며 신음소리를 냈다.

유진은 호두를 다 깎 후, 바닥에 그릇을 내려놓고 퇴장했다. 그날따라 유진의 키가 커보였는데 아마도 보통 때와는 다르게 무대에 있는 유진을 올려다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장기자랑 일등은 유진이나 엘리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엘리스는 장기자랑으로 ‘플라잉 핑거스(Flying Fingers)’를 피아노로 쳤다. 호두 껍데기가 피아노 건반에 너무 많이 끼어있는 바람에 엘리스가 계속 연주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만 않았더라면 꽤 험란한 무대였을 것이다. 그날 유진의 무대가 가장 인기가 있었지만 심판들은 머리에 위험을 줄 수도 있는 장기에 상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혹시라도 머리에 문제가 나중이라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등은 유치원 리듬밴드에게 돌아갔는데 아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 결정으로 그 유치원생 엄마들은 매우 기뻐했고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물론 아이들은 유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졌고 유진이 일등을 해야 했다고, 최고였다고 말하면서 유진의 머리를 만져보고 싶어 했다.

“항상 그렇게 호두를 까니?” 누군가 물었다. 유진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건 글래디스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다.

“어쩌서?” 찰리가 물었다. “글래디스가 왜 그랬을까?”

글래디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면 글래디스가 유진의 머리를 개 모양으로 잘라서 죄책감에 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학교에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먹으로 갔을 때 간식이 다 사라진 것을 보고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간식은 맥클러스키 아주머니가 담당했는데 엄마가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다. “글래디스가 뛰어와 유진이 무대에서 갑자기 실성해서 자살시도를 하고 있다고 소리를 쳤을 때 전 막 컵케이크를 담은 접시를 테이블에 놓고 있었죠. 보통 때였으면 허드만 아이들이 하는 얘기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여기저기 쿵광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또 사람들이 ‘유진! 유진!’이라고 소리치는 것도 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안으로 뛰어갔죠.”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었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도 유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간식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모두들 간식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있었지만 늘 그렇듯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증거는 없었고 글래디스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웬들컨 아주머니는 이 사실을 부정했다. 아주머니는 유진이 증거라고 말했다. “글래디스가 불쌍한 유진한테 자신의 머리를 때려 바보가 되게 만들고는 한바탕 난리가 나도록 한 후에 식당으로 가서 쿠키를 모조리 갖고 사라진 거라고요!”

그럴 지도 모르지만 유진은 바보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유진은 ‘색다른 무대를 보여준 당돌한 유진 프레스턴, 우드로우 윌슨 장기자랑에서 기립박수 받다.’ 라고 신문에 이름이 실린 유명한 스타가 됐다. 그래서 유진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기사에는 유치원 리듬 밴드의 내용도 언급이 됐지만 이름은 나왔지 않았고 (기자는 ‘밴드부원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뮤지컬 제목도 언급되지 않았다. (‘거의 모든 곡들을 연주했을 것이다.’)

게다가 유진의 엄마와 선생님들 빼고는 더 이상 유진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지 않았다. 가끔은 심지어 선생님들도 깜빡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유진을 망치머리라고 부르기도 했다.

가끔 이번 학년 숙제인 ‘반 친구 칭찬하기’를 기억 할 때면 내 공책에 적힌 숙제 페이지를 펼쳐보곤 했다. 지금까지 엘리스를 합해 여섯 명의 아이들에 대한 칭찬을 생각해 냈다. 그리고 엘리스 이름 옆에다 ‘중요한’이라고 적어뒀다.

“그걸 칭찬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엘리스는 그렇게 생각할 거 예요.” 내가 말했다. 사실 엘리스는 아마 그 말을 ‘지구는 둥글다’, ‘하늘은 파랗다’처럼 ‘엘리스 웬들컨은 중요하다’라는 것도 당연한 사실로 여길 것이다.

엘리스는 1학년 학생 처음으로 교무실 안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1학년을 시작하자마자 중요한 아이가 됐다. 그래서 교무실로 뭘가를 가져가야 할 때면 그건 엘리스의 차지였다.

선생님은 “교무실에 가져가야 할 자료가 있네.”라고 말하고는 “3층에서 더 올라가면 있는데, 엘리스가 정확히 교무실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심부름 좀 부탁할게.”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엘리스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치고 머리를 만지고는, 양손을 앞으로 쭉 내민 채 자료를 들고 그 자료가 하느님께 받은 복음인양 전달했다. 무엇보다도 엘리스는 교무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수업이 끝나고 할 일이 없을 때면 교무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선생님들 말고는 교무실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교무실 문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창문도 꼭대기 까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을 볼 수도 없었다.

한번은 부머가 찰리를 자기 어깨위에 태우고 찰리에게 안을 들여다보게 했지만 찰리는 ‘드디어 금요일이다.’ 와 ‘드디어 방학이다.’라는 핏말밖에 보지 못했다.

이 소식은 학교에 파다했고, 아이들은 교무실에 걸린 이 문구를 집에 가서 얘기 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선생님들은 교무실에 커튼을 걸었고 그 후로는 아무도 교무실 안을 볼 수 없었다.

“안에 볼 것도 없어.” 엄마가 말했다.

“그냥 의자랑 탁자 몇 개 하고 소파 하나, 큰 커피포트 하나, 작은 냉장고 하나 있을 거야.”

“TV는 없어요?” 찰리가 물었다.

“TV는 없지.”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뭐해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쉬겠지.” 엄마가 말했다. “또 얘기를 나누거나 점심을 먹을 거야.”

“이모진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요.” 찰리가 중얼거렸다.

“그래?” 엄마가 말했다. “네가 이모진이 하는 말을 다 믿는다면 아무거나 다 믿겠구나.”

이모진은 찰리에게 “선생님들은 교무실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콜라를 마셔.”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가 케이크를 갖고 오면 시어스나 로백 봉투에 넣고는 자기가 산 것처럼 하고,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교무실로 들어가서 먹는 거지. 또 비밀번호를 모르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찰리는 바로 기뻐하며 “비밀번호가 뭘데?”라고 물었다. “선생님들은 매일 비밀번호를 바꿔.” 이모진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아침 조회에서 알려줘. 점심 메뉴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야. 저번엔 암호가 마카로니와 치즈였지.”

이모진은 점점 말을 꾸며냈다. 어쨌든 이모진의 상상력은 놀랄 만 했다. 그래서 심지어 나는 공책을 꺼내 이모진의 이름 옆에 ‘상상력 있음’이라고 적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 그건 상상력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이란 걸 기억했다. 그리고 이모진에게 해 줄 칭찬을 찾는 것이 어찌면 이번 학년에 겪을 가장 힘든 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칭찬을 빨리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당연히 찰리는 이모진의 말을 듣고 ‘마카로니와 치즈’가 아침 조회에 나오기만을 계속 기다렸다. 찰리는 교무실을 지나면서 “마카로니와 치즈”라고 말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볼 작정이었다. 그러나 점심메뉴에 마카로니와 치즈가 나왔을 때 찰리는 코피가 터져 양호실에서 꼼짝 할 수도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다.

이모진은 찰리에게 그날 비밀번호가 소프트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 소용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넌 해봤어?” 찰리가 물었다. “안에 들어갔어?”

“난 안에 들어가기 싫은데.” 이모진이 음흉하게 찰리를 쳐다봤다. “교무실에 들어간 아이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 폴린 엘리슨 기억나?”

찰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그 애를 기억 못하지. 교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케네스 위버 기억나? 그 애 최근에 본적 있어?”

“아니, 그 애는 볼거리에 걸렸잖아.”

“그건 네 생각이지. 케네스는 볼거리에 걸리지 않았어. 걔도 교무실에 갔다가 잡혔어.”

찰리도 이걸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쳇, 그런 게 어디 있냐.” 찰리가 말했다.

이모진은 고질라처럼 크게 웃어보였다. “케네스도 내 말을 안 믿었지.” 이모진이 말했다. “걔한테 교무실 근처엔 안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모진은 자기는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그래도 갔더라고.” 라고 말했다.

이번만은 아무도 이모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모진에게 직접 ‘네 말 못 믿겠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엘리스는 이모진은 거짓말쟁이고 이모진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모두 이모진을 비웃을 것이고 때려눕힐 수도 있으니 지금부터 이모진은 더 이상 아이들을 부러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이 말도 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멋진 생각 같았다.

“그냥 케네스가 돌아올 때 까지 두고 보자고!” 아이들은 다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케네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찰리가 찾아왔다. “케네스는 절대 안돌아와.” 찰리가 말했다. “선생님이 케네스 책들을 정리하더니 버나뎃 슬로컴을 그 자리에 앉혔어. 그리고는 ‘자, 케네스가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라고 말했어. 이모진이 말한 그대로야!”

“찰리야 그만해.” 내가 말했다.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케네스를 가두지 않은 거 알잖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뭐가 진짜인지 알고 싶었다. 우선 이모진이 케네스가 사라졌다고 말했고 그 후에 정말로 사라졌다. 이모진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



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고, 교무실 근처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도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3층에 접근조차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도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2층 위를 올라가면 어지러움을 느꼈다. 엘리스는 발가락이 빠였다고 의자나 탁자를 붙잡고서 절뚝거리며 다녔기 때문에 물론 한 층에서만 머물렀다.

그런데 루엘라가 진실을 말해줬다. “난 이모진이 틀렸다고 생각해.” 루엘라가 말했다. “또 교무실에서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모진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이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모험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두 명과 지역 감독관과 웬들컨 아주머니가 실수로 교무실에 갇힌 적이 있었다. 거의 한 시간 반 동안 갇혀있었는데, 그 분들을 문을 쿵쿵 두드리고 소리를 치고 심지어 창문 밖으로 물건들을 던지기도 했다. 그리고 커튼을 뜯어낸 후 의자위로 올라가 문 맨 위쪽으로 팔을 흔들기도 했지만 아무도 교무실 근처에 얼씬 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난지도 모르고 있었다.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 이 분들이 교무실에서 나왔을 땐 모두 매우 화가 나 있었다. 특히 감독관과 웬들컨 아주머니는 거의 이성을 잃은 것처럼 날뛰었다. 마지막엔 세분 모두 녹초가 됐고 소리를 하도 질러대서 목은 쉬고, 팔을 계속 흔들다 보니 어지럽기까지 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모진이었다.

이모진은 문 앞에 서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다. 이 말을 듣고 웬들컨 아주머니는 또 이성을 잃었다.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웬들컨 아주머니가 말했다.

“어떻게 하기는, 당장 문 열고 우릴 꺼내주란 말이야!”

“근데 여긴 교무실이잖아요.” 이모진은 그 규칙이 머릿속에 꽂 박힌 아이 마냥 충격을 받은 얼굴로 말했다. “우린 교무실에 들어가면 안돼요.”

“교무실에서 사람들을 꺼내줘도 되는 거야!” 웬들컨 아주머니가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감독관이 웬들컨 아주머니에게 화를 냈다. “이 아이가 우리를 구해줬어요.” 감독관이 말했다. “이 아이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날마다 자고 깨면 어떻게 교무실에 몰래 숨어들어가 볼까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괴상망측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지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선생님들의 사생활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전 이 아이 같은 학생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이모진인가요?”

“우리학교에는 이 아이 같은 학생들이 다섯 명 더 있어요.” 한 선생님이 말했다.

감독관은 정말 좋겠다고 말했지만, 모두들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뛰어다니느라 힘이 빠졌는지 아무도 이 말에 반박 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신문에 실렸다. ‘영리한 학생이 3층 교무실에 갇힌 교직원들을 구했다.’라고 적혀있었다. 기사에는 그 영리한 학생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와 있었다.

“케네스 위버 이름은 없어.” 찰리가 말했다. “케네스 위버에 대한 말은 전혀 없어.”

“그게 증거야.” 내가 말했다. “케네스는 그 안에 절대 없었거든.”

“도대체 왜 케네스가 교무실에 있었겠니?” 엄마가 말했다. “케네스네 가족은 틀레도로 이사 갔어.”

“케네스도 데리고 갔어요?” 찰리가 물었다.

“당연히 케네스도 같이 갔지! 아이를 두고 이사 가는 사람이 어디 있니?”

“허드만 아저씨요.” 내가 말했지만 엄마는 그건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앨리스는 그 신문기사를 잘라서 이모진에게 줬다. “내가 갖고 싶을까봐.” 앨리스가 말했다. “네 얘기잖아. 네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아무도 그게 넌지 모르지만 말이야. 근데 왜 네 이름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케네스의 이름도 없었지.” 이모진이 말했다. “그 말은?”

“그 말은 케네스가 거기 없었던 거지!” 앨리스가 말했다.

이모진이 코가 부딪힐 정도로 앨리스의 얼굴로 바짝 다가가자 앨리스는 겁을 먹었고 눈은 사팔뜨기가 됐다. “왜 내가 교무실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해?” 이모진이 물었다. “그 선생님들 꺼내주려고 내가 문을 열어준 줄 알아? 선생님들이

거기 평생 갇히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난 케네스를 꺼내주려고 문을 연거야.”

“거기 우리 엄마도 같이 있었어.” 엘리스가 말했다. “근데 케네스를 보지 못했대.”

“진짜로 엄마한테 물어봤어?”

“아니, 왜냐면 케네스는 톨레도에 있거든.”

“지금은 거기에 가있지.” 이모진이 말했다.

이모진은 교묘하게 말을 지어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허드만 남매들의 그 수법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엘리스는 대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감독관은 이모진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시간 반 동안 교무실 간혀있는 동안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거기에 있던 가구들이라고 말했다. “소파는 다 낡고 딱딱했어요.” 감독관이 말했다. “그리고 의자들은 다 부서졌고 조명은 형편없었어요. 그 문이 고장 날만도 했어요. 그 안에 있는 것들 중 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새 소파와 의자를 샀고 가구점에서 새 양탄자를 기부받기도 했다. 또 교무실 벽을 새로 칠했고 문도 고쳤으며 새 커튼과 큰 식물을 하나 샀기도 했다.

또 아이들 모두가 새 물건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 문을 열어두었다. 이걸 보고 엘리스는 “봐봐, 안에 아이들 아무도 없지.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졌던 적도 없어.”라며 자기가 옳다고 말했다.

이모진은 말이 안 통한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맘대로 생각해.”

찰리도 엘리스의 말을 듣고 이모진의 말에 반박할 용기가 생긴 모양이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야?” 찰리가 말했다. “아이들을 숨길 곳이 없잖아.”

“당연히 있지.” 이모진이 손으로 뿔 가리켰다. “저것 봐, 시카고를 먹은 식물 말이야.”

“그 식물 말이구나.” 그날 저녁 엄마가 말했다. “글쎄, 나라면 양치식물 같이 평범한 식물을 샀을 텐데, 교무실에 뭔가 과학적인 것을 사고 싶었던 모양이야. 그건 끈끈이 주걱이란 식물이야. 파리를 꿀꺽 삼키는 식물이지.”

찰리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날 쳐다봤는데, 찰리는 혹시 실수로라도 비밀번호를

말해서 교무실 안으로 사라져, 그 식물에게 잡아 먹혀 죽어도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것 같았다.

“찰리야, 그건 파리를 먹는 거야.” 내가 말했다. “파리만 먹어.”

“어쨌든 그건 그냥 식물이잖니.” 엄마가 말했다. “근데 파리와 햄버거를 구별하지는 못하지. 그러고 보니 잡히는 건 다 먹는 것 같네.”

보통 때 같았더라면 찰리가 이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니면 아이들이 피자나 포테이토칩이나 엠앤엠(M&M) 쿠키 같은 걸 그 식물에게 주려고 줄을 썼을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아마도 문을 잠그고 ‘선생님의 출입금지’라는 큰 팻말을 걸어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교무실 근처엔 가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식물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감독관이 새 가구를 보려고 다시 왔을 때 감독관은 이것에 대해 “그 친절한 아이에게 고마워해야 되요. 그 애 이름이 이모진이었나요?”라고 물으면서 이모진 덕분에 선생님들이 이처럼 평화롭게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감독관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난 이모진에게 달려가 고맙다고 말하는 선생님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어쨌든 나도 이모진에게 해줄 칭찬 거리를 찾아야했지만 그 감독관이 뭐라고 말했던 간에 그래도 공책에 ‘이모진은 친절하다’라고 적을 수는 없었다.

일 년에 한번 우리는 아이큐 검사와 심리 검사, 그리고 적성검사를 받았다. 우리가 허드만 남매들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아 졸업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아보는 검사였다. 그런 허드만 남매들은 시력검사만 받았다.

이 말은 적어도 그 남매들이 알파벳을 읽을 줄은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실에 놀라워했다. 시력검사를 받을 때는 한쪽 눈을 작은 종이로 가리고 차트에 적힌 글자를 읽은 후 다른 쪽 눈을 가리고 다시 읽어야 했다. 이걸 못한 다는 것은 안경을 써야 하는 걸 의미했다.

혹시라도 이걸 못한다면 레스터 이글처럼 그냥 검사받는 것을 무서워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틀리게 읽으면 눈알이 뒤집혔다는 소리지. 그러면 눈알을 꺼내서 다시 제대로 끼워 넣어야 돼.” 글래디스가 레스터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레스터는 너무 겁을 먹어서 L과 M을 구별하지도, X와 K를 구별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이 “그럼, 눈을 바꿔보자”라고 말하자마자 레스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레스터의 엄마가 와서 집으로 데려갈 때까지 양호실에 누워있어야 했다.

레스터의 엄마인 이글 아주머니는 세 명의 아이와 갓난쟁이를 키우는 학교버스 운전기사였다. 그래서 레스터가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줄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레스터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허드만”이란 말만 할 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했다.

“어떤 허드만?” 이글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 아이들 중 누가 그런 거야?” 아주머니가 묻자 레스터는 글래디스가 했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뭘 했는데?” 양호 선생님도 궁금해 물어봤다. “글래디스는 거기에 있지도 않았잖아.”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글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에이본 양 에게 아기를 맡겨야 돼서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도 없어요. 또 버스 운전할 시간도 다 됐고요. 어서, 레스터야... 양호선생님, 레스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봐 주세요요.” 아주머니가 양호 선생님께 말했다.

물론 글래디스는 자기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안과 의사선생님도

확실히 글래디스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레스터가 교정기 끈 걸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틀림없이 그게 그 아이의 문제일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교정기를 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끼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이다. 글로리아는 자신의 여동생인 코번에게만 교정을 시켜줬다고 몇 주 동안이나 울기까지 했다. “난 나중에 앞니가 돌출된 못생긴 아이가 될 거야.” 글로리아가 말했다. 그런데 글로리아는 정확히 교정기가 뭔지 알지도 못했다. 그냥 다른 애들처럼 교정기를 끼고 싶은 것이었다.

그날 밤 양호선생님은 이글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글래디스는 레스터에게 실제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아마 레스터의 교정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넌지시 말했다.

“무슨 교정기요?” 이글 아주머니가 말했다. “레스터는 교정기를 끼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아주머니는 레스터의 입을 보고 깜짝 놀라 거의 죽을 뻔 했다.

“네 입에 도대체 뭘 한 거니?”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그게 다 뭐야? 클립이잖아!”

아니나 다를까 레스터는 흰 클립을 치아에 끼고 있었고 이글 아주머니가 그걸 빼자 또 히스테리를 부렸다.

양호 선생님은 다른 건 들어봤어도 클립을 쫓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근데요, 아이들은 교정기를 낄 수 없으면 고무줄이나 뭐 그런 걸로라도 대신 끼려고 해요. 교정 시켜주려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래요, 레스터가 낀 건 35센트더군요.” 이글 아주머니가 말했다. “레스터는 글래디스가 자기한테 억지로 그 클립을 끼게 만들고는 그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애는 절대 내 버스에 탈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허드만씨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요!”

버스에서 쫓겨나는 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 어쨌든 반드시 학교는 가야 하니 버스에서 쫓겨나면 아빠가 기다렸다가 태워다 주던지, 엄마가 하던 일을 멈추고 태우러 오던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욕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다른 애가 버스에서 쫓겨나도 엄마는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아마 허드만 아주머니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주머니는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아이들이 허드만 남매들이 버스를 못타게 했기 때문에 허드만 남매들은 버스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다. 그래도 가끔 그 남매들은 자신들의 버스 정류장이었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싸움을 걸며 어린 아이들에게 버스는 벌레로 짝 차있다고 말하며 놀기도 했다.

“큰 벌레 말이야.” 글래디스가 맥신의 남동생인 도날드에게 말했다. “그 벌레 소리 못 들어 봤어? 그 벌레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우걱우걱 씹어 먹어. 그러니까 나한테 네 점심 도시락 주는 게 좋을걸. 내가 학교에 가져다줄게.”

물론 도날드의 도시락은 그 후로 사라졌지만 적어도 맥신은 그 도시락에 볼로냐 샌드위치와 당근 몇 토막 밖에 없기 때문에 허드만 남매들은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들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엘리스가 맥신에게 말했다. “왜냐면 다른 애들은 버스 타서 따뜻하고 편안히 오는데 자기들은 걸어서 와야 하거든.”

“엘리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말했다. “학교 버스가 따뜻하고 편하다고 생각하면 넌 진짜 제정신 아니야.”

그런데 그때 이모진이 우리 바로 뒤에 서있어서 엘리스는 내 말을 무시하고 학교 버스를 타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또 만약 애들을 못살게 굴어 학교 버스를 타지 못하는 허드만 남매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지에 대해서 말했다.

그날 이후 허드만 남매들은 매일 아침 맥신의 버스정류장에 마차를 털기 직전의 악당들처럼 교활하고 심상치 않은 표정을 하고 나타났다.

“근데 그 아이들은 아무 짓도 안했어.” 맥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냥 거기 서있어. 무섭게 말이야.”

도날드도 이런 허드만 남매들의 행동에 매우 겁을 먹었고, 삼사일 후 도날드가 문 밖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자 맥신이 현관 앞에서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 가래!”라고 소리쳐야 했다.

“우린 집에 못가!” 이모진이 다시 소리 질렀다. “우린 학교에 가야되거든!”

맥신은 허드만 남매들이 그 말을 하며 자신들이 아침에 일어나 양치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 뭔가를 배우러 나온 평범한 대가족의 보통의 아이들이던 것처럼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했다.

맥신은 자기 집 현관에서 꽤 안전하다고 느꼈는지 “그럼 그냥 버스타서 가면



되잖아!”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모진이 말했다. “너희 버스를 타라고? 6번 버스를 타란 말이야?” 그리고 클래디스는 그 버스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버스라도 절대 그 버스는 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르로이도 “나도 안타.”라고 말했다.

“그런 후에 버스가 왔어.” 맥신이 우리에게 말했다. “그 아이들은 매카시네 집 앞 울타리 뒤로 뛰어가서 그냥 거기서서 우릴 쳐다보기만 했어.”

“이글 아주머니는 뭘 했어?” 내가 물었다.

“그 아이들한테 고함 쳤지. ‘너희들 절대 내 버스 탈 생각 하지도 말아라!’라고 말이야. 그러자 우리가 ‘절대 6번 버스 안 탈거예요!’라고 두 번 이나 말했어. 근데...” 맥신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내 생각엔 허드만 남매들이 그 버스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 “그냥 버스잖아.” 내가 말했다.

“알아.” 맥신이 말했다. “근데 내가 타는 버스잖아. 나도 재수 없는 버스는 타기 싫어.”

말도 안 되는 이 말에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허드만 남매들이 6번 버스를 무서워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단 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허드만 남매들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허드만 남매들은 그게 뭐든지,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매일 버스정류장에 나타나 휘파람을 불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서있었다.

찰리는 허드만 남매들이 버스의 작은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훔쳐서, 언젠가 버스가 다 무너져 버스에 탄 아이들이 길바닥 여기저기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유진이 로봇버스에 대한 ‘놀라운 만화책’ 한 권을 갖고 왔다. 그 책은 갑자기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자동으로 몸통을 뒤집어서 모든 문을 잠그는 로봇버스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갇혀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는 내용이였다. 그 만화책에는 마이티 말보란 인물이 등장해 모두를 구출하는데, 유진은 마이티 말보도 그 남매들에게는 대적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맥신이 말했다. “계속 버스에서 이상한 소리



가 들려.”

난 맥신이 버스 안의 소란 속에서도 어떻게 다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엘로이즈 올브라이트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어떤 아이들은 버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 당연히 달걀 샌드위치 냄새와 덩굴 옷나무 약 냄새, 그리고 앨리스의 리틀 프린세스 향수 냄새가 섞이면 이상한 냄새가 날 수 밖에 없었다.

레스터는 결국 그의 엄마한테 버스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지만 이글 아주머니는 “있지. 애들로 짝 찼어”라고만 말했다.

어느 날은 3학년 아이들이 젓소 농장에 젓소를 견학하러 갈 때 6번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올리는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안 갈래요.” 올리가 말했다. “그 버스타고 안가요!”

물론 젓소들에게 이 소식은 매우 좋은 소식이었고, 담당 선생님도 이 말에 꽤 행복해 했지만 나머지 3학년 아이들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부머의 여동생 그웬다는 버스가 터지지 않을까, 뒤집히지 않을까 하고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젓소 우유까지 짜야 했기 때문에, 그날 3학년 아이들 모두 하루 종일 긴장해서 지쳤다고 말했다.

이 때 쯤 되니 도날드와 레스터와 6번 버스를 타는 다른 모든 아이들과 함께 맥신도 신경쇠약에 걸렸다.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토할 것 같다가도 버스에서 내리면 괜잖아 졌고, 다들 허드만 남매들이 그 버스를 타지 않으니 자기들도 타기 무섭다는 똑같은 말만 했다.

“그게 이유가 되니?” 엄마가 물어봤다. “당연히 그 아이들은 버스를 못타지. 이글 아주머니가 못 타게 했잖니. 또 아무도 그 아이들이 그 버스 타는 걸 원하지 않잖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 같아요.” 찰리가 엄마한테 말했다. “그리고 허드만 남매들은 그게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안타는 거라고요. 그 아이들은 6번 버스가 재수 없단 걸 알고 있어요.”

“재수 없다니!” 엄마가 찰리를 쳐다봤다. “네가 TV를 너무 많이 봤구나. 다른 아이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럼 그 아이들을 버스에 태워봐.”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 버스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찰리는 엄마의 말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허드만 남매들이 그 다시 버스에 타게 된 걸 보니 교장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았다.

“레스터, 우리도 이 버스 타야 돼.” 글래디스가 말했다. 글래디스가 크게 웃자 레스터는 클립을 꺼서 반짝반짝 거리는 글래디스의 이를 다 볼 수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시켰어.”

“네가 이 버스 타는 걸 무서워하는 줄 알았는데.” 맥신이 이모진에게 말했다. “네가 이 버스는 끝장 날거라고 말했잖아.”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이모진이 맥신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한 건 너야.” 이모진은 버스에 올라타 이번엔 누구 옆에 앉아 못살게 굴까 하며 통로를 왔다 갔다 했다. “이 버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글 아주머니는 처음엔 꽤 화가 났지만 우리 엄마한테 허드만 남매가 버스에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애들한테 조용히 입다물고 있으라고 했죠.”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러자 다들 그러더군요.”

그러나 이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클로드와 르로이가 애완동물 가게에서 아기 거북이 몇 마리를 훔쳐 그 버스에 탄 후 아이들 셔츠 속에 집어넣은 일이 있었다. 르로이는 나중에 이 일로 자신도 놀랐다고 말했다. 르로이는 그 거북이들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게로 도로 갖고 가 불평하고는 환불해 달라며 돈을 받아낼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거북이들은 죽지 않았다. 아마도 거북이들은 누가 자신들을 데리고 왔는지 보고는 그 사람을 물어 버릴 정도로 자랄 때까지 등껍질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셔츠 안은 따뜻해서 좋으니 그 거북이들은 머리를 내밀고 기어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등에 거북이가 기어 다니는 걸 안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또 등에서 꿈틀거리게 뭔지 알고 있는 아이도 아무도 없었지만 도날드는 그게 땅콩버터 샌드위치에 질린, 배고픈 큰 벌레쯤으로 생각했다. “내 등에 큰 벌레들이 있어!” 도날드가 소리 지르자 다른 아이들도 소리 치고 비명을 지르며 쭈뼛쭈뼛 뛰며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이글 아주머니는 버스를 멈춰 아이들을 진정 시켜야만 했다.

그 거북이들을 의자 밑과 등받이 뒤에서 모두 다 찾을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래도 작은 거북이들이어서 빨리 자라지 않아 다행이었다.

허드만 남매들은 그 거북이들을 다 찾아 버스에서 내린 후 절대 다시 그 버스를 타지 않았다. “이 멍청한 버스 타기 싫어.” 랄프가 중얼거렸다.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다. 허드만 남매들은 그냥 그 버스를 접수하고 애들 몇 명 때린 후, 제일 좋은 점심 도시락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다. (보통 그웬다의 도시락이 걸렸다. 그 도시락에는 디저트 두 개와 불량식품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남매들은 버스에서 내려 평상시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래도 이번만은 허드만 남매들만 원하는 걸 얻은 것이 아니었다. 레스터의 젓니가 팝콘처럼 속 빠진 것이다. 이글 아주머니는 “그 클립 때문이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젓니가 빠지고 난 후 새로 난 레스터의 이는 뒤틀리고 옆으로 치우쳐져 나왔기 때문에 레스터는 우리학교에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더 큰, 더 화려한 교정기를 해야 했다.

루엘라의 엄마 맥클러스키 아주머니가 전화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때, 아주머니는 루엘라에게 또 어린 남동생 하워드를 봄방학 기간 동안 돌보라고 시켰다.

“이번엔 절대로 허드만 남매들이 하워드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아주머니가 말했다. “하워드의 머리카락이 이제 자랐으니까 그 애들도 머리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겠지. 그래도 또 뭘 일 저지를 수도 있어.”

하워드의 머리카락이 자란 것은 사실이었지만 귀와 훨씬 떨어진 데서부터 잔디처럼 곳곳이 서서 자랐기 때문에 크게 나아진 건 없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하워드의 머리를 다 밀어서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할 거야.” 루엘라가 말했다.

“트로이한테 그렇게 말해봐.” 내가 말했다.

루엘라의 얼굴이 창백해 졌다. “그럼 엄마가 날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럼 난 살아있는 한 다시는 TV도 못보고, 영화도 보러 가지 못하겠지.”

하워드를 돌보는 동안 루엘라는 아무도 하워드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학교가 개학하자 매일 하워드를 돌보는 일을 그만 하게 됐다. 그래서 맥클러스키 아주머니는 학교에 특별 허락을 받고 루엘라가 하워드를 학교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했다. “며칠만 데리고 가면 되.” 맥클러스키 아주머니가 말했다. “다른 사람 구할 때 까지 만이야.”

“나 이제 어찌지?” 루엘라가 말했다. “복분수를 배우면서 하워드를 계속 감시하는 건 불가능해. 게다가 이모진이랑 같은 교실에 있을 거잖아!”

루엘라는 이 사실에 몹시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루엘라를 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루엘라가 하워드를 끈에 맨 채 나타났을 때 난 별로 놀라지 않았다.

그렇지만 켄프 선생님은 꽤 놀란 모양이었다. “루엘라, 꼭 그렇게 까지 해야 하니?” 선생님이 물었다. “어쨌든 네 남동생은 6학년에 온 손님이잖니. 여러분, 우리가 손님을 이렇게 대해야 할까요?”

몇몇 아이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하워드를 골칫덩어리로

여겼기 때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예의가 뭔지, 손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지에 대해 10분 동안 말했다. 하지만 루엘라에게 그 줄을 풀라고 시키지 않은 걸 보니 선생님도 하위드를 골칫덩어리로 생각한 것 같았다.

그래도 선생님은 하위드가 어딜 가려고 움직일 때 마다 엉덩방아를 찧는 걸 보고, 루엘라에게 긴 줄로 바꾸라고 시켰다.

“하위드가 넘어지는 않는 법을 배우는 게 좋을 걸.” 이모진이 말했다. “클로드도 그걸 배워야 했거든.”

선생님이 이모진을 바라봤다. “뭘 배웠다는 거니?”

“줄 끝을 넘지 않는 방법이에요.”

“클로드는 왜 줄에 묶였었니?”

“우리 집엔 개가 없거든요.” 이모진이 말했다.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귀에 물이 들어가 소리가 이상하거나 잘 안 들릴 때처럼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선생님을 비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루엘라가 날 쿡 찮았다. “개를 갖고 싶으면 그냥 동물 보호센터에 가면 되는데. 우리도 거기서 개를 데리고 왔거든.” 루엘라가 말했다.

루엘라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난 동물보호센터 사람들이 허드만 남매들에게 개 한 마리커녕 금붕어 한 마리를 구조해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허드만 남매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남매들이 동물 보호센터에 가서 이미 “개 한 마리 갖고 싶어요.”라고 물어봤지만 동물 보호센터에서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라고 단번에 거절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남매들은 그냥 주위를 살펴보고는 “좋아. 클로드, 네가 우리 집 개해라.”라고 시켰고, 클로드는 자기가 질릴 때 까지 개가 됐거나 아니면 다른 남매들이 질릴 때 까지 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난 클로드가 개가 됐을 때 어떤 짓을 했을지 궁금해졌다. 사람들을 물었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건 글래디스가 전문이었다.

부머는 클로드가 어쩌면 멍멍 짓으면서 그 집을 지켰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키긴 왜 지키는데?” 내가 물었다.

부머가 당황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몰라. 강도 때문에?”

“야, 여기서 진짜 강도가 누군데?”

“아, 맞다.” 부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애들이지.”

개를 안 키우는 아이들은 클로드가 누가 부르면 달려오거나 똑바로 앉아 밥 달라고 하거나 뒹굴거나 신문을 갖고 오는 걸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개를 키우는 아이들은 자기 개는 집에 들어가고 나가려고 할 때 짓고, 차 뒤편 무니를 쫓기도 하고, 또 탁자위에 있는 음식을 떨어뜨리기도 하며, 이웃집 쓰레기 봉지를 물어뜯는다고도 말했다. 이게 클로드에게 더 어울리는 말 같았다. 어쨌든 이걸 다 하려면 클로드가 질릴 만도 했다.

“클로드가 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목에 맨 줄 때문이야.” 엘리스가 말했다. “어떤 사람하고는 다르게 말이야.” 하워드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엘리스는 벌써 루엘라에게 하워드에 대한 얘기를 했다. “네 남동생에게 글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 그래서 나처럼 하워드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할 수 있게 말이야. 근데 유치원에선 하워드를 안 받아 줄 것 같아. 좀 멍청한 것 같거든.”

“하워드는 글 읽기엔 아직 너무 어려워.” 루엘라가 화를 참으며 투덜거렸다. “하워드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으면 화장실 가는 법 좀 가르쳐봐.”

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엘리스는 ‘화장실’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손만 들면 되는 방법은 엘리스에게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 그렇지 않고 엘리스가 화장실에 가야한다는 걸 말로 해야 했다면 절대 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엘리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워드가 정말 멍청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기 치고는 6학년 교실에서 잘 지냈다. 종이와 크레파스를 갖고 놀았고 작은 상자에 담긴 시리얼을 먹기도 했다. 또 아이들이 갖다 주는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했다. 그렇지만 하워드는 엘리스가 준 A, B, C가 적힌 엄청나게 큰 판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판지 위 여기저기에 낙서를 했는데, 엘리스가 이걸 보고 바로 이게 하워드가 멍청하다는 증거라며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라고 말했다. “하워드는 절대 유치원에 못 들어갈 걸.” 엘리스가 또 말했다. 엘리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고, 또 상당히 어려운 일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걸 갖고 있으면 유치원에서 절대 하워드를 안 받아 줄 거야!” 하워드의 담요를 보자마자 엘리스가 말했다. 그리고 이번만은 엘리스의 말이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담요는 정말 역겨울 정도로 더러웠다. 루엘라는 원래 그 담요는 파란색이었고 또 토끼무늬도 그려져 있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우리 아빠가 쓰는 세차 걸레와 다름이 없었다.

“하워드는 그 담요가 없으면 안 돼.” 루엘라가 말했다. “그게 없었으면 벌써 교실에서 쫓겨났을 거야. 그 담요가 없으면 막 울고 소리치고 펄쩍 뛰어. 그래도 담요를 못 찾으면 숨을 꼭 참아버려서 얼굴도 자주색으로 변해.”

이 말을 듣자마자 부머가 그 담요를 확 낚아채서 깔아 앉아 버렸다. 만약 아이들이 하워드의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면 부머 때문에 큰 싸움이 일어날 뻔 했다. 쉬는 시간 중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 구석에 있던 하워드의 주변에 모여 있었다. 당연히 더 많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경하려고 모여들었다. 하워드가 소리를 더 이상 지르지 않고 숨을 참기 시작했을 때쯤에는 우리학교에 있는 아이들 절반 정도가 모여 아이들 틈사이로 구경하고 있었다.

“하워드한테 무슨 일 있어?” 누가 물었다. “아직 자주색으로 안 변했어?”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눈알이나 머리 핏줄이 모두 다 튀어나올 정도로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할 정도가 된다면 하워드가 살아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루엘라” 내가 말했다. “어떻게 좀 해봐. 하워드 얼굴 터지겠어.”

“그런 일은 없어.” 루엘라가 말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숨 참는다고 터지지는 않아. 과학적 사실이야. 기절하지도 않을 거야. 두고봐봐.”

루엘라의 말이 틀리면 어찌지? 난 그 상황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진이 아이들을 이쪽저쪽으로 밀치며 갑자기 튀어나와 루엘라를 때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네가 자주색으로 변한다고 말했잖아!” 이모진이 말했다. “이 얼굴색이 자주색이냐? 누가 자주색으로 변할 때까지 하루 종일 여기 서서 기다려준데? 야, 이거 받아.” 이모진이 하워드에게 그 담요를 던지자 하워드는 어깨를 들썩거리며 크게 흐느껴 울었다. 그 후 이모진은 콧방귀를 끼며 떠났다. 거기에 몰려있던 아이



들은 이 모든 것이 다 루엘라 잘못이라도 되는 냥 루엘라에게 투덜거렸고, 그러는 동안에도 하워드는 계속 흘쩍거리고 딸꾹질을 하면서 그 담요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냥 지금 이 담요를 빼앗아 버려야겠어.” 루엘라가 말했다. “그럼 애들 구경시켜주면 다 끝나겠지. 근데 연속으로 두 번이나 숨참아 본 적은 없는데. 그랬다간 하워드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라.”

난 그럼 하워드가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루엘라가 그 담요를 빼앗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기회만 된다면 그 담요를 빼앗을 궁리를 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와 찰리에게 나중에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다.

“하워드는 머리에 낙서도 그려졌었고 광택세제로 뽀뽀 벗겨져 지기도 했어. 또 머리를 다 밀어서 빛나는 대머리가 된 적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누가 머리카락 심어놓은 꼴이야. 그 불쌍한 어린아이가 이정도 겪었으면 된 거 아니니?”

하지만 이모진은 엄마처럼 하워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며칠 뒤에 하워드를 전시할 계획까지 세웠다.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놀라운 아기를 보세요! 25센트입니다!”) 그래서 이모진은 하워드가 지치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한쪽 눈으로는 하워드를 감시하고 다른 쪽 눈으로는 그 담요를 감시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담요를 잡아채려고 했을 때 이모진은 웨슬리가 알아차릴 새도 없이 때릴 수 있었다.

이모진은 웨슬리를 넘어뜨릴 정도로 세계 때렸다. 그리고 나서 웨슬리를 일으켜 세워 양 쪽 귀를 잡아당기면서 “그 담요나 하워드를 건들기만 했다간 네 머리통을 다 껌으로 아주 딱 붙여서, 뽕 때 네 머리카락하고 눈썹이랑 입술까지 벗겨지게 만들 거야.”

이 말을 들은 웨슬리와 아이들은 그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루엘라도 매우 겁을 먹었다.

“이모진이 왜 하워드한테 잘해주는 걸까?” 루엘라가 말했다. “그 담요를 왜 또 찾아 준거야? 벌써 두 번째잖아. 웬까?”

나도 그 이유는 몰랐다. 다만 담요나 하워드를 건들었다간 껌을 머리에 다닥다



닥 붙이거나 머리카락이 다 뽑혀 대머리로 살아야 하는 것 외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모진이 또 담요를 찾아다 줄 일은 없을 거란 걸 알았다.

“어쩌면 이모진이 하워드를 좋아하는 것일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왜?” 루엘라가 물었다. “나도 내 동생이지만 안 좋아하는데.”

“동생들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말했다. “나도 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야. 너도 하워드가 네 동생만 아니었다면 좋아했을 거야. 난 하워드 좋아하거든. 만약 하워드가 네 동생도 아니고, 학교에 데리고 올 필요도 없고,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또 줄로 묶지 않아도 됐다면 좋아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줄로 묶어야 한다...” 루엘라가 말했다. “이모진이 한 말 기억나? 집에 개가 없으니까 클로드를 줄로 묶었다고 한 말 말이야.”

“그게 어째서?”

“그러니까 아직도 그 집엔 개가 없잖아. 그리고 이미 하워드는 묶여 있고. 아악!” 루엘라가 꺾 비명을 질렀다. “이모진이 하워드를 자기네 개로 키우려는 거야. 엄마가 날 가만 안들 거야!”

“말도 안 돼.” 내가 말했다. “사람을 개로 만들 순 없어. 근데 그 남매들이라면 그런 척은 할 수 있겠지만...”

“하워드 좀 봐봐.” 루엘라가 말했다. “재는 이모진이 시키는 건 뭐든 다 할 거야.”

맞는 말이었다. 하워드는 그 담요를 끌어안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모퉁이(다른 부분보다도 더 지저분해진)를 만지며 이가 빠졌을 때 하나에 10달러를 나눠주는 이의 요정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모진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모진은 개 비스킷을 먹이고 어떻게 사람을 무는 지도 가르칠 거야!” 루엘라가 칭얼거렸다.

“그럼 어쩌면 하워드가 글래디스를 물지도 몰라. 그리고 개 비스킷은 먹어도 아무 문제없어. 다른 사람들도 맛보려고 하다못해 한 번 씹은 먹어보잖아.” 내가 말했다.

난 솔직히 개 비스킷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찰리는 어렸을 때 퍼피 플래저스라는 개 비스킷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한번은 찰리에게 그게 어떤 맛인지 물어보자 찰리가 정확히 설명해 줬다.

“초콜릿 바를 바닷가에 갖고 가서 모래위에 놓고, 다 녹을 때 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녹은 초콜릿 바를 모래랑 같이 얼린 후에 잘게 부숴 먹으면 바로 피피 플래저스 맛이 나지.”

그때 난 찰리가 모래 때문에 죽거나 서서히 발부터 모래로 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뒷마당에다 찰리를 세워놓고 꽃이라도 심어 줘야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몰랐다.

또 허드만 남매들이 하워드를 개로 키우면 하워드한테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몰랐다. 찰리와 내가 개를 키우고 싶다고 말하면 엄마는 항상 “개가 있다면 뭘 할 건데?”라고 물었다. 근데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개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옆에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알아서 밖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전화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개를 찾으면 그때 알려 주렴.” 엄마가 말했다.

루엘라는 이제 우리가 이모진을 감시할 차례라고 말했다. “안 그럼 하워드를 데리고 집으로 도망가서 루버나 스팟 같은 개 이름을 지어 줄 거야.”

다행히도 이모진은 그럴 기회가 없었다. 맥클러스키 아주머니가 일하던 도중 전화선을 혼선시키는 바람에 삼십 분 동안 전화 시스템이 모두 중단되어, 아주머니는 너무 겁이 나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루엘라는 더 이상 학교에 하워드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었다.

그제야 루엘라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캠프 선생님도 하워드가 없어서 기뻐 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선생님은 우리가 하워드를 아주 그리워 할 것이고, 하워드가 우리 6학년에 큰 존재였고, 항상 우리는 하워드를 기억할 것이라며 짧은 작별인사말을 했다.

“누가 들으면 하워드가 죽은 줄 알겠네.” 이모진이 툭툭 거렸다. 이모진은 매우 화가 난 듯 보였다. 하워드의 담요를 찾아준 일이나 아무도 하워드를 건들지 못하게 해준 일과 같은 착한 일들을 괜히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대가로 개를 원했을 진 모르겠지만 집에 개가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 더 하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하워드가 담요를 놓고 간 것 같네요. 하워드 담요 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었다. 있었다 해도 이모진이 큰 풍선껌을 붙였다 찢었다 하며 죄진 표정을 한 아이에게 그 껌을 붙이려고 앉아 있는데, 봤다고 인정할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풍선껌에 대한 과목이 있어서 그걸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모진은 올 백점을 받았을 텐데 그런 과목이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모진이 분 풍선은 아주 크고 얇아서 이모진의 얼굴이 다 보일 정도였다. 마치 피부를 통해서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았다.

“우리가 그 담요를 찾지 못하면 어찌지?” 내가 루엘라에게 물었다.

“빨리 찾아야 돼. 안 그럼 하워드가 계속 울고 숨도 참아버려서 딸꾹질만 할 테니까. 그래서 미칠지도 몰라.”

루엘라는 한번은 하워드가 계속 그러다가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해서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담요를 찾아주지 않으면 하워드가 유치원에 들어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다음 주까지 살아 있을 지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엘리스는 차라리 그 담요를 찾지 못하는 편이 하워드를 위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몇 번 씩 그 담요를 찾아다녔다. “다 낚고 더러워서 세균으로 뒤덮인 걸 왜 찾니?” 엘리스가 말했다. “루엘라, 그걸 잃어버린 걸 다행으로 생각해. 언젠간 하워드도 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엘리스가 엄마들이 못생긴 신발을 사줄 때처럼 얘기했다. 보통 엄마들은 “이 신발은 넉넉하니까 네 발이 자랄 수 있겠어. 너도 언젠간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라고 말한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 엘리스에게 치즈를 짜서 쏘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도 “엘리스야, 하워드의 나이가 그 언젠가가 될 때쯤이면 그 담요 따위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는 걸 보니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누군가 “그건 모르는 일이야.”라고 투덜거렸다. 이모진이었다.

그 다음날 하워드가 미치지도 않고 또 자주색으로 변하지도 않고 그날 밤을 무사히 넘겼다는 기쁜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이모진이 그 담요를 갖고 나타난 것이었다. 이모진은 버스 정류장 덩불 밑에서 그 담요를 찾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허드만 남매들은 그냥 습관처럼 옮길 수 있는 건 뭐든 다 훔쳤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담요도 훔쳤었던 것이다. 루엘라는 이모진이 그 담요를 갖다 주자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근데 뭐 어때?” 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해리슨 미술 선생님이 복도에서 루엘라를 불러 세우고는 하워드에게 줄 몽땅 크레파스 여러 개를 건네주었다. “그 담요에 대한 얘기를 금방 들었어.” 선생님이 말했다. “루엘라야, 그 담요는 찾지 못 할 거야. 내가 버렸거든. 지난번 우리 미술시간에 칠판 지우려고 쓴 다음에 그냥 갖다 버렸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하워드의 담요인지 몰랐어. 내 세차 걸레인줄 알았지 뭐야.”

루엘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거 찾았어요.”

해리슨 선생님도 고개를 저었다. “내 기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안단다. 근데 그 담요 없어졌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쓰레기통에 버린 게 그 담요란 걸 알았어.”

“선생님이 틀린 말을 하는 거야.” 루엘라가 말했다.

“네 생각이 틀린 걸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루엘라가 잠시 생각했다. “글쎄, 하워드가 틀린 건 아닐 텐데. 하워드는 그게 자기 담요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

그런데 우리는 하워드가 잠들 때 까지 기다렸다 그 담요를 빼앗았다. 잠든 하워드의 손가락을 풀고 그 담요를 뺀 후 재빨리 루엘라의 낡고 닳아 해진 목욕가운으로 바꿔버렸다.

“내 말이 맞지?” 루엘라가 말했다. “바로 그 담요야.”

낡고 색깔이 다 바랜 더러운 회색의 그 담요는 특히 모퉁이 쪽이 해지고 칙칙한 회색을 띠는 게 꼭 하워드의 담요 같았다. 그리고 희미하게 대문자 H가 기울어 휘갈겨 적혀 있었다.

“하워드의 이니셜도 적혀있네.” 내가 말했다. “하워드의 H가 있어.”

“이를 어째.” 루엘라가 말했다. “하워드의 담요에는 이니셜이 없었는데.”

난 루엘라에게 그 이니셜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이니셜 말고 다른 이니셜도 있었다. I 라고 적혀있었다.

I.H. 우리학교에서 I.H.란 이니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 바로 이모진 허드만 밖에 없었다. “루엘라” 내가 말했다. “이모진은 이 담요를 덩불 밑이나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었어. 이걸 이모진 담요야!”

루엘라는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루엘라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모진도 어렸을 때 담요를 꼭 끌어안고 다녔다는 것 말고도 아 기였었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담요가 이모진 거라면 개가 그냥 순순히 주지 않았을 텐데. 허드만 남매들이 지금까지 뭘 그냥 준 적 없잖아.” 루엘라가 말했다.

“그럼 이 이니셜은 어떻게 설명할건데?” 내가 물었다.

“그건 이니셜이 아닐 거야.” 루엘라가 말했다. “그냥 토끼 무늬에서 남아있는 걸 거야.”

그래서 루엘라는 이렇게 믿었다. 하지만 난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 이니셜은 분명 이모진의 이니셜이었고 그 담요도 이모진의 것이었다. 어쩌면 이모진이 아 기였을 때 누군가가 담요를 빼앗아 버려서 소리를 지르고 숨도 참고 얼굴도 자주색으로 변했던 적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워드와 심정을 잘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모진이 하워드에게 동정심을 느낀 것이다.

난 ‘반 친구에게 칭찬하기’라고 적힌 공책에 이걸 당장이라도 적고 싶었다. 그런데 ‘이모진 허드만은 동정심이 있다.’라고 적는 것은 너무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렇게 적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그럼 또 이걸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모진도 한때는 계속 씹어서 모퉁이가 닳은 담요를 갖고 있었다고 말하면, 아마 이모진은 내 머리를 껌으로 다 붙여 버릴 것이다.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허드만 남매들이 동시에 결석 하는 날은 방학 같았다. 그런 날에는 쉬는 시간에 죽을 일도 없었고, 점심 도시락을 빼앗을 사람도 없었으며 굳이 돈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또 그런 날에는 수업도 쉽게 끝났다. 부머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선생님들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말했다.

허드만 남매들이 왜 결석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심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그 남매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결석사유를 적은 종이를 가져올 필요도 없었다.

“뭐 하러 그래요?” 양호선생님이 엄마한테 말했다. “다 자기가 쓸 텐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또 어차피 지어서 쓸걸요. 그리고 혹시라도 전염병에 걸렸으면 결석하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에 나와서 다른 애들한테 입김 불면서 옮기려고 했겠죠.”

또 허드만 남매들은 예고도 없이 결석했다. 그러던 중 소방훈련 날 허드만 남매들이 모두 결석했을 때 우리학교가 소방대피훈련 안전상을 타게 되었다. 그 전까지 우리 모두는 이 남매들이 결석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렇게 나아지다니.” 소방서 대장님이 말했다. “지난번에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데 34분이나 걸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알면서 그러세요.”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지난번에는 올리 허드만이 지하실에 있던 유치원생 절반정도를 데리고 시내로 나가버렸잖아요.”

“제 말은, 이번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올리가 없었어요. 랄프나 이모진이나 르로이, 클로드, 글래디스까지 허드만 남매들 다 여기 없었어요.”

“어디 갔는데요?”

“결석 했어요.”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소방서 대장님이 실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전 또 이사라도 갔다고요. 그렇군요...” 소방서 대장님은 다시 한숨을 쉬고는 이사 간 게 아니라면 무슨 일

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 다시 소방서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 상을 받아 매우 기뻐했다. 한 번도 그런 상을 타 본적이 없었고 어찌면 허드만 남매 중 막내가 졸업 할 때 까지 그런 상을 다시는 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상을 실제로 받으려면 화재 예방의 날 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명예로운 상을 받을 거란 상상을 하며 기뻐했다. 매년 화재 예방의 날마다 우리 학교가 받은 건 스모키 곰 스티커가 전부였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큰 성과였다. 화재 예방의 날에는 소방서 대장님과 시장님이 참석하는 특별한 시상식이 열릴 것이고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보내 사진도 찍고 화재 예방에 대해 아이들과 인터뷰도 할 것이다.

물론 허드만 남매들은 화재 예방에 대해 반대하는 것 말고는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자가 허드만 남매들 중 한명과 인터뷰를 하지 않기를 바라야 했다. 또 이 남매들이 그 큰 행사에 맥주 광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 했다. 차라리 그냥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야 했다.

“어찌면 시상식에 안 올지도 몰라.” 찰리가 말했다. “어찌면 우리학교가 이 상을 땀는지도 모를 수 있어.”

허드만 남매들은 전화를 누가 발명했는지 같은 건 잘 몰랐지만 항상 자기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이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화재와 소방관 아저씨들에 대한 팻말과 포스터가 학교 여기저기 걸려있었고 칠판마다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 소방대피훈련 안전상 수상’이라고 적혀있었다. 아이들은 이 상에 대한 책갈피와 식탁 매트를 만들고 시를 쓰고 글짓기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점심으로 핫도그와 햄버거 대신 파이어 도그와 스모키 버거를 먹었다.

당연히 허드만 남매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떤 2학년 아이가 ‘스모키 곰이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를 축하합니다.’란 팻말을 목에건 아주 큰 곰 인형을 복도에 세워놓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그 곰의 발에는 성냥과 라이터가 가득 있었고 무릎에는 폭죽이, 입에는 반쯤 피우다만 담배꽂초가 물려 있었다. 스모키 곰이 방화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음, 진짜 구역질나!” 앨리스가 말했다. “누가 이걸 소방서에 신고하면 어찌지?”



그럼 우리가 그 상을 못 탈지도 몰라. 이번에도 그 허드만 남매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 분명 그 행사에서 사람들 때리고 발 걸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확 뒤집어 아이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 행사 망칠거야.”

그 날 교장선생님은 뒷문으로 방송실에 들어갔는지 그 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교장선생님은 2학년 아이들이 만든 다섯 가지 화재 예방 전시에 대한 전달사항을 먼저 말했다. “여러분 모두가 2학년 교실로 가서 아이들이 직접 만든 우리학교의 마스코트, 스모키 곰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드느라 수고한 2학년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전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스피커에서 들려왔다. 또 누가 마이크를 손으로 막았는지 지지직거리는 소리도 났다. 그래도 목소리가 띄엄띄엄 들렸다. “성냥... 더럽게 젖은 담배꽂초... 그 곰 치워버려...”

그리고 나서 총무부 파커 선생님이 마이크를 넘겨받아 읽을 자료를 정리하고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갑자기 교장선생님을 찾는 연락이 와서 본인이 전달사항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학년 앨범 비는 금요일까지 내도록 하세요. 4번 버스에서 프레드 프린트스톤 학생 도시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 팀 회의가 방과 후에 학교식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엘리스는 다른 중요한 약속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메모해야 하는 사람처럼 방송이 나오자 수첩에 적기 시작했다.

이모진이 날 쿵 찼다. “화재 안전 팀이 뭐냐?”

“그 행사 때문에 생긴 팀이야.” 내가 말했다.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범보이는 팀이야.”

이모진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했다. “불이 나면 물 뿌리고 거길 당장 피해야지.” 그러곤 음흉한 눈빛으로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말했다. “누가 있는데? 그 팀에 누가 있는 건데?”

난 이모진이 쓸데없는데 시간낭비 하고 싶지 않도록 “잘 몰라”나 “알게 뭐야”처럼 별로 대수로운 게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엘리스는 자기자랑을 해야 했다.

“나도 팀원이야. 정식 팀원은 열 명인데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파서 참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임시팀원 두 명 더 있어.” 엘리스가 말했다.



보통 허드만 남매들한테 걸리면 마지막 순간에 아파서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쨌든 이모진은 이 말에 흥미를 보였지만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엘리스가 계속 말했다. “또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 화재 안전 팀’이라고 적힌 티셔츠도 입을 거야. 사진에 한 팀처럼 나올 수 있게 말이야.” 이 말을 듣고 이모진은 큰 관심을 보였다.

난 “엘리스, 그만말해.”라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미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이모진은 벌써 화재 안전 티셔츠를 입은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분명했다. 다만 과연 그 시상식 날 임시팀원 두 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식팀원 중 누가 아프게 될 지, 이것만은 분명하지 않았다.

당연히 방과 후 학교식당에는 이모진만 나온 게 아니었다. 다른 허드만 남매들도 다 나와 있었다. 당장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것처럼 꾸부정하게 식탁위에 둘러앉은 허드만 남매들은 의자 밑에 오랫동안 붙어 있던 세균이 득실거리고 이를 부러뜨릴 정도로 딱딱해진 반질반질 한 껌을 떼서 씹고 있었다.

그 화재 안전 팀에는 학년 별로 한 명 이상 씩 있었는데 아이들 모두 허드만 남매들에게 신경이 가 있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도 허드만 남매들을 무시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랄프, 이모진, 올리, 오늘 학교 끝났다.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거라. 방금 여기서 회의 시작했어.”

“저희도 가입하러 왔어요.” 랄프가 말했다.

“무슨 가입 말이냐? 화재 안전 팀에 가입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그거 말이에요. 거기 가입하고 싶어요.” 르로이가 말했다.

“전달사항 방송하실 때 들었어요. 방과 후 회의에 대해서 말이에요.” 글래디스가 말했다.

교장선생님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우리학교 학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하는 곳에 가입 할 수 있다는 규칙을 교장선생님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교장선생님은 우리학교 학생은 원하던 안하던 학교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칙도 만들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우리학교 아이들은 두세 개 클럽에 가입했는데 전부다 가입한 아이들도 있었다. 또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교장선생님이 억지로 가입시

킨 아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허드만 남매들은 아무데도 가입한데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말이다.

우리 엄마는 허드만 남매들이 화재 안전 팀에 가입하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들 보다 화재 안전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는 아이들이 누가 있겠니?” 엄마가 말했다. 어떤 아이들은 허드만 남매들이 그 팀에 가입하면 적어도 시상식 중에 그 아이들을 감시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우리 아빠는 그건 은행 강도들에게 은행을 터는 방법을 보여주라고 초대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말했다.

허드만 남매들이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세 명이 봉변당하기 전에 그 팀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엄마들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티셔츠를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교장선생님은 그 엄마들이 말한 그 상황이 허드만 남매들에 대한 것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티셔츠에 관해서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말했다. “그건 학부모회에서 결정할 일이에요. 학부모회에서 이번 특별 행사를 기념하려고 화재안전 팀에게 티셔츠를 나눠주는 거 예요.”

학부모회 회장님은 화재안전 팀을 그만두는 아이들에게까지 주려고 그 티셔츠를 나눠주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웬들컨 아주머니는 화재안전 팀에 억지로 가입하려는 허드만 남매들에게 그 티셔츠를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했다.

그 티셔츠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할지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난 그 중 돈을 주거나 심지어 그 티셔츠 오십 장을 준다고 해도 그 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찰리의 말에 동의했다. “그 아이들이 훈련하는 걸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엎드리고 굴러’하고 소리 지르니까 허드만 남매들이 미식축구에서처럼 다른 아이들 등 위로 마구 엎드리더라고.”

한번은 그 남매들이 앨버트 등위로 엎드려서 앨버트가 거의 바닥에 바짝 눌린 적도 있었다. 다행히 앨버트가 아주 뚱뚱 했기 때문에 별로 다치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앨버트는 그 팀을 그만뒀다. “뚱뚱한 걸로도 이미 실컷 고생하고 있는데 훈련하다 죽고 싶지 않아.”

시상식이 임박하자 팀원 두 명이 병에 걸렸고 (그 두 명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자 마자 임시팀원 두 명이 그만뒀다. 그래도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그만되어야겠니?” 교장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건 아주 좋은 기회야.” 교장선생님이 말한 좋은 기회란 화재 예방의 날 시상식에 참석하고 티셔츠도 받고 사진도 찍혀 신문에 실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또 허드만 남매들한테 맞아 땅속으로 2피트 정도 묻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

“전 임시팀원이라면 괜찮아요.” 로버타 스콧이 말했다. “사실 시상식은 못가요.”

“로버타야, 바로 그러니까 임시팀원이 되어 달라는 거잖니.”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시상식에 참가하는 건 네 자유야. 로니야, 너도 말이다.”

로니도 임시팀원 부탁을 받았지만 천식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거절했다.

“그럴듯한 핑계구나. 근데 너 천식 없잖아. 누가 천식에 걸렸는지 이 교장선생님은 다 알고 있단다. 또 누가 유행성 결막염에 걸렸는지, 누가 덩굴 옷나무 알레르기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무좀이 있는지도 다 안단다. 그리고 누가 기침하고 누가 감기에 걸렸고 또 누가 위염이 있는 지도 다 안단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

교장선생님은 그 외에 알고 있는 병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로니의 엄마가 학교로 전화해 몸에 발진이 나 로니가 아프다고 말했다를 때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핑계가 좋네.” 교장선생님이 말했다하셨다. “아마 물감이나 사인펜 같은 걸로 그린 거겠지. 이 삼주 전에 르로이가 얼굴에 빨간 반점을 그리고 돌아다니는 걸 봤지. 사고 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르로이, 가서 얼굴 씻고 와.’라고 말했지. 그런 후에 그 반점이 다 사라졌더군.”

그러나 로니 얼굴에 난 것은 물감으로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건 수두였다. 그래서 “소방대피훈련 안전상 시상식”이라고 시작을 알리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거기에 갈 수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화재 예방의 날을 다른 날로 연기하고 싶었지만 소방서 대장님은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의 날은 우리 도시 전체에서 열려요. 우리 주 전체에서도요. 원한다고 아무 때나 화재예방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남아 있는 아이들 몇 명 모아 보세요.

그 화재안전 팀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그 아이들하고 소방서로 오세요. 바로 거기서 시상식을 열도록 하죠. 큰 행사로 만들게요.”

그날 시상식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큰 행사가 되었다. 시상식 삼십 분 전에 피자 가게에서 불이 났기 때문이다. 소방관 아저씨들이 그 불을 바로 꺾지만 피자 가게 주인 산토로 아저씨는 연기 때문에 손님들을 다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그래서 대부분 손님들은 그냥 소방차를 따라 소방서까지 왔고 시상식이 열리는 동안에도 거기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산토로 아저씨가 팔지 못하게 된 피자를 갖고 와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자 그 불이 났던 게 시상식 행사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다들 화재 예방을 알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리고 시장님과 소방서 대장님께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서 축하를 해주었다. 그리고 소방서장님은 피자를 기부한 산토로 아저씨에게 고마워했다.

신문기자도 이것이 행사의 일부였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자는 ‘화재 예방의 날을 강조하기 위해 가짜 화재 일으켜. 피자 가게 주인, 시상식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피자 기부하다. 학생들, 안전기술 상을 수여하다.’라는 기사를 썼다.

그 상을 수여한 학생들은 화재 안전 팀에 남아있던 랄프, 이모진, 르로이, 클로드, 올리, 그리고 글래디스였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범죄 용의자처럼 소방차 앞에 줄을 선 허드만 남매들의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 경찰관이 “누가 범인이죠?”라고 묻자 피해자가 “잘 모르겠어요. 다 비슷해 보여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펼쳐졌다.

실제로 허드만 남매들은 체격만 다를 뿐이지 서로 많이 닮아 보였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화재안전 팀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상황을 잘 몰랐다면 학교가 아니라 허드만 남매들이 상을 받은 걸로 착각했을 것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 불평했고, 신문사에서는 ‘우드로우 윌슨 초등학교 수두 유행에도 소방대피훈련 안전상 수여하다.’라고 다시 기사를 써야했다. 이걸 본 아빠는 이런 기사가 없는 것 보다는 낫지만 많이 나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수두가 그 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

는 거지?” 아빠가 궁금해 했지만 엄마는 그냥 찰리와 내가 몸을 긁어대는 모습을 보는데 질려서 아빠가 그러는 거 말했다.

웬들컨 아주머니는 베이킹 소다를 듬뿍 섞은 물을 욕조에 받아 앨리스를 앉히고는 몸을 긁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하얀 면장갑도 끼게 해 더 긁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학교에 다시 나올 때 까지도 앨리스의 피부는 쪼글쪼글 했을 뿐더러 계속 그 장갑을 끼고 있었다.

“앨리스야, 이제 그 장갑은 필요 없을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무슨 생각할 때는 이 장갑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깜빡하고 긁지 않죠. 수두를 긁었다간 감염돼서 흉터가 남아요.”

“르로이는 흉터 안 남았어.” 이모진이 말했다. “올리도 안 남았고, 또...”

“잠깐.” 선생님이 말했다. “르로이? 올리? 수두 유행할 때 너희들이 결석 했었니?”

“아니요. 우리 결석 안했어요.” 이모진이 말했다.

선생님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근데 수두 걸렸던 거야?” 선생님이 물었다.

“네? 제가 수두 걸렸었는지 물어보시는 거 예요?” 이모진이 말했다.

둘이 대화하는 걸 듣자니 꼭 보청기 안 낀 우리 할머니와 장거리 통화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것처럼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지도 않은 것 같았다.

“수두에 걸리면 의사선생님 진단서 없이 학교에 나올 수 없어.” 선생님이 말했다. 그러자 이모진은 “아, 알겠어요.”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래서 허드만 남매들이 정말로 수두에 걸렸었는지 아니면 그 중 몇 명 만 걸렸던 건지, 아니면 또 언제 수두에 걸렸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남매들이 수두에 걸린 채 학교에 나와 아이들에게 전염시켜서 그 큰 시상식을 망친건지, 아니면 소방 훈련 날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해 우리 학교가 그 상을 타게 된 건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학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은 꽤 한가한 편이었다. 마지막 날 책상 정리를 할 때를 제외하면 굳이 선생님들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날 책상 정리를 하는 일만 없었더라면 6월 중 어느 날 교장선생님이 “자, 오늘이 이번 학년 마지막 날이네요.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9월에 다시 만나요.”라고 방학을 알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랬다면 아이들 모두 냄새나는 양말과 곰팡이 쓴 병어리장갑, 또 다 녹은 할로윈 캔디와 먹다 남은 샌드위치도 안 치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것이다. 한번은 유치원에서 키우던 게르빌루스 쥐가 달아나 부머의 책상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게르빌루스 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유치원에서 키우던 다른 동물들처럼 이 쥐에게도 이름과 사람처럼 성격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친한 친구 게르빌루스 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쥐의 이름은 밥입니다. 밥을 보신 분은 유치원 교실로 보내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을 게시판에서 보고, 유치원 아이들이 그 쥐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그냥 죽은 게르빌루스 쥐 한 마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밥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이 쥐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부머는 그 쥐를 유치원 교실로 갖다 주었다. 우리는 그 쥐를 본 유치원 아이들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조그마한 나무 상자를 구해다가 그 죽은 쥐를 위한 시를 쓰고 장례를 치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머는 유치원 아이들이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생님도 아무 관심 안보였어.” 부머가 말했다. “한번 보더니 ‘우리 밥이 아닌 데.’라고 말하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

만약 우리가 이 일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아마도 ‘학년 마지막 날에는 죽은 동물을 갖고 오면 안 된다.’일 것이다.

어차피 이젠 동물이 살아있더라도 갖고 올 수 없었다. 매년 학년 마지막 날이 되면 예쁜 애완동물 선발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클로드 허드만이 그 집 고양이

를 데리고 대회에 참가한 사건 이후로는 그 대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허드만 남매들의 고양이는 한쪽 눈이 없었고 한쪽 귀도 조금 잘려 있었으며, 또 꼬리도 거의 다 잘려 사라진 상태였다. 게다가 전혀 온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참가하더라도 상을 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고양이였다. 만약 내가 이 고양이의 주인이었다면 좀 깨끗이 씻기고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허드만 남매들처럼 고양이털을 온통 하얀색으로 칠하고 초강력 스프레이를 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클로드 말에 따르면 허드만 남매들은 이런 고양이를 데리고 참가하면 ‘가장 특이한 애완동물 상’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털이 다 하얗게 되고 스프레이 때문에 뻗뻗해져 성질이 매우 난 이 고양이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이 대회는 개, 고양이, 거북이, 햄스터, 기니피그가 우르르 몰려 도망치는 대회가 되어버렸다. 몇몇 아이들은 자기 애완동물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나무 위나 전봇대 위로 올라간 고양이들도 있었고 마구 짖어대며 거리를 달리는 개들도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던 이 고양이는 썩썩 소리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 하얀 가루를 때려고 운동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잃어버린 고양이들과 개들을 다 찾았기까지 하루 종일 걸렸다. 하지만 햄스터 두 마리는 영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예쁜 애완동물 선발대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특별활동에 할 게 없어서 버렸다. 따라서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그날 할 수 있는 특별활동 계획을 짜야 했다. 그래서 맞춤법 대회가 열린 적도 있었고 또 수학 경시대회가 열린 적도 있었다. 또 한명씩 일어나서 여름방학 계획을 말 한 적도 있었고, 이 세상의 왕이라면 뭘 하고 싶은지 말했던 적도 있었다.

어느 해엔가는 수집품을 갖고 온 적도 있었다. 그 수집품 중에는 야구 카드나 크래커 잿 경품이나 풍선껌 포장지 같은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배꼽 때도 있었다.

그 배꼽 때를 모아 갖고 온 아이는 이모진이었다. 하지만 이모진은 다른 아이들에게 이걸 취미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배꼽 때 같은 건 안 모아. 이건 예전에 모으다가 남은거야.” 이모진의 오래된 배꼽 때를 본



건 그 날이 마지막이었다. 수집품 갖고 오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학년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 깜짝 놀랄만한 계획 같은 건 없었다. 칠판에 ‘반 친구 칭찬하기’라고 이미 적혀 있었고 벌써 모자에서 이름 적힌 종이가 뽑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이 적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더 생각해야만 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학년 내내 이 숙제를 했어요.” 캠프선생님이 말했다. 선생님은 몇몇 아이들만 숙제를 했고 대부분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뭐든 빨리 생각해 내야 했다. 선생님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숙제를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배우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마침내 엘버트에게 어울리는 칭찬을 생각해냈다. ‘엘버트는 똥똥해’라는 선입견을 버리면 엘버트에게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특별한 자질이 있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엘버트는 언젠가 자신도 날씬해 질 거라고 굳게 믿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이다. 그래서 엘버트에게는 ‘결단’이나 ‘용기’와 같은 단어들도 어울렸다. 그래서 난 엘버트에게 해줄 칭찬이 많았기 때문에 꼭 엘버트의 이름이 뽑히기를 바랐었다.

하지만 난 엘버트를 뽑지 못했다. 내가 뽑은 종이에선 이모진 허드만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그런데 난 겨우 생각해낸 이모진의 유일한 칭찬인 ‘애국적인’이란 단어를 이미 공책에 적은 상태였다.

“애국적이라고?” 엄마가 말했다. “이모진이 특히 애국적인 이유가 있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이모진은 매번 일어서서 해요.”

“그건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잖아. 만약에 우리는 다 앉아있고 이모진만 일어서서 한다면, 그럼 그건 애국적이라고 해도 돼.” 찰리가 말했다.

“그건 용감한 거겠지.” 내가 말했다.

“이모진은 그러고도 남을 거야. 이모진은 우리가 안하는 것들도 하려고 하잖아.” 찰리가 말했다.

그럼 이모진을 용감하다고 써도 되는 걸까?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뭐라도 생각해 내야 했기 때문에 난 공책에 ‘애국적인’과 ‘용감한’을 적어두었다.



이들이 지나도 여전히 내 공책에는 ‘애국적인’과 ‘용감한’ 밖에 없었지만 다른 아이들 공책에는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공책에서 살짝 빠져나온 조앤 터너의 단어 목록 맨 아래에는 “발랄한, 활달한, 우아한, 공평한”이라고 적혀있었다. 과연 누구의 칭찬리스트일지 궁금해졌다.

맥신도 분명 대단한 목록을 만든 것 같았다. 내게 ‘협동적인’과 ‘열정적인’의 맞춤법을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부머는 남자아이를 뽑은 것 같았다. 보이스카우트 규칙에 나오는 ‘절약하는’, ‘칭결한’, ‘충실한’이란 단어들이 부머의 공책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가능한 이모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혹시라도 이모진이 뭔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모진의 행동 중 좋은 행동이 뭔지 구별하는 건 어려웠다.

난 이모진이 자전거 고정대에 낀 보이드 리케트의 머리를 꺼내준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드의 엄마인 리케트 아주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리케트 아주머니는 이게 다 허드만 남매들이 벌인 짓이라고 말했다. “올리 허드만이 보이드에게 시킨 거 예요. 그리고 글래디스가 보이드에게 겁을 줘 긴장하게 만들어서 머리를 빼지 못 한 거 예요. 그런 후에 이모진이 나타난 거라고요.”

난 보이드의 머리가 어떻게 자전거 고정대에 끼게 됐는지 알 것 같았다. 보이드는 1학년밖에 안됐고, 또 보이드의 머리는 아주 얇고 길게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자전거 고정대에서 머리를 빼지 못했는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보이드의 귀가 문제였다. 보이드의 귀는 손잡이처럼 머리에서 푹 튀어나 있었다. 그래서 보이드의 머리와 귀가 자전거 고정대 안쪽으로 걸쳐져 있었고 몸은 그 반대편으로 나와 있었다. 아이들은 보이드에게 소리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줬다. “머리를 뒤집어봐.” 누군가 말했다. 그러자 또 어떤 아이는 눈을 찡그리고 얼굴을 옆으로 꺾 눌러서 빼보라고 말했다. 보이드의 누나인 조렌드는 보이드의 귀를 접은 채 밀어서 빼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귀를 한쪽씩 접어서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조렌드는 거기에 모인 우리들에게 받은 보이드 앞에 서서 밀어보고 나머지 받은 뒤에 서서 당겨보라고 했다. “머리를 이 안으로 통과시켰으니까 분명 빼는 방법도 있을 거

야.”

난 밀고 당긴다고 보이드의 머리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보이드는 뭐든 해볼 기세였다.

글래디스도 보이드에게 격려 아닌 격려의 말을 해줬다. “머리를 못 빼면 네 귀 다 잘라야 할 거야. 어쩌면 한쪽 귀만 잘라도 뺄 수 있을지 몰라. 어느 쪽 귀로 듣고 싶어? 맘에 드는 쪽이라도 있어?”

보이드는 글래디스의 말을 믿고 있었다. 자전거 고정대에 머리가 낀 1학년 아이에게 글래디스의 말은, 그야말로 실제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만한 얘기였기 때문이다.

보이드가 “내 귀 자르지마!”라고 지르는 소리를 몇몇 선생님이 듣고 교장선생님에게 알렸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소방서에 전화를 했고, 그러는 동안 유치원 선생님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보이드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널 풀어주려고 사람들이 오고 있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사람들이 누구고, 또 어떻게 풀어줄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글래디스는 또 보이드에게 나중에 안경을 낄 경우를 대비해 귀를 다 자르지 않고 조금은 남겨줄 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그래서 이모진이 나타났을 때 보이드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있었다.

이모진은 그 자전거 고정대에 나중에 누군가를 밀어 넣을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이드의 머리가 거기에 끼게 된 건지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보이드는 심하게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이모진에게 말해 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정확히 보이드의 머리가 어떻게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지 아는 아이도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이모진은 우선 보이드를 구해준 다음 나중에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다.

이모진은 스카치테이프를 보이드의 귀를 감은 다음 학교식당에 있는 버터를 갖고 와 보이드의 머리에 전부 발랐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이쪽저쪽으로 밀자 쪽 빠졌다.

당연히 보이드의 눈과 귀와 코는 버터로 범벅되어 엉망진창이었다. 그래서 조렌드는 보이드를 집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조렌드는 보이드에게 멀찌감치 떨어져 걸게 했다. 또 보이드에게 “엄마가 널 보자마자 ‘저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라

고 소리쳐.”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이드를 다시 보고는 “또 네가 누군지도 말해 줘.”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게트 아주머니는 보이드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조렌느는 만약 보이드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엄마는 기절했을 거라고 말했다.

“이모진이 보이드 머리에 버터를 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 밤 엄마가 아빠에게 물었다.

“재치 있는데.” 아빠가 말했다. “깔끔한 방법은 아니지만 재치 있는 방법이야.”

“그거 칭찬 이죠? 그렇죠?” 내가 아빠에게 물었다. “재치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아빠가 말했다. 그래서 난 그 단어를 ‘애국적인’과 ‘용감한’ 옆에 적어두었다.

난 칭찬을 적은 그 공책을 마지막 날 선생님께 제출하기만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엘리스는 선생님이 “최우수 칭찬 단어 목록 중 몇 개”를 읽을 거라고 말했다. 당연히 그 목록에는 자기 것도 포함될 거라는 말이였다. 그리고 부머는 선생님이 칭찬 목록에 있는 여러 내용을 읽을 거라서 그게 누군 건지 알려면 추측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이 목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럼 부머에 대한 칭찬 먼저 읽어보죠. 라번 모건이 부머의 이름을 뽑았네요. 부머야, 라번 앞에 앉아서 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렴.”이라고 말했다.

라번은 껍 소리를 질렀고 부머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교실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나 심한 경우에는 개인적인 칭찬까지 큰 소리로 읽어야 할까봐 목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라번은 부머가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지만 그렇다고 우쭐대지는 않는다고 말했고 그 외에 평범한 것들을 두 세 개 더 말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게르빌루스 쥐를 물어주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 쥐를 갖다 준 건 잘한 일이었어.”

나도 부머가 잘 했다고 생각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우선 그 쥐를 들고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유치원 교실까지 갖다 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얼마 남지 않은 쥐의 꼬리를 집어든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부머야, 잘했어.” 부머가 자리로 돌아오자 내가 말했다. 부머는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또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자기 칭찬을 해주니 쪽스러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 기쁜 것 같았다.

다음은 엘로이즈 올브라이트 순서였고, 그 후에는 루엘라가,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니어 제이콥스가 나왔다.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베스야, 너에 대한 칭찬을 들어보자. 조앤 터너가 네 이름을 뽑았구나.”라고 말했다.

난 조앤 터너가 “발랄한, 활달한, 우아한, 공평한”이라고 적은 목록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건지 궁금해 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왔다.

“생김새에 대해 쓰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아하다고 적었어. 넌 걸을 때마다 무용수처럼 아주 똑바르게 걷거든. 계속 그렇게 걸을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면 항상 넌 그 점에 대해 칭찬을 받을 거야.”

똑바로 잘 걷는 다고 칭찬을 받고나서 다시 자리로 걸어가려고 하니 매우 힘들게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때 똑바로 걷는다면 평생 계속 그렇게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앤의 말이 맞다면 영원히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 문 사이를 양팔을 대고 올라갔다 그 상태로 손을 땀 채 걸을 때처럼 이상하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도 세 명의 아이들이 앞에 나가고 나서 선생님이 이젠 이모진의 차례라고 말할 때 까지 계속 그런 느낌이 남아있었다.

“뭘 할 차렌데요?” 이모진이 말했다.

“베스가 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 차례란다. 베스가 네 이름을 뽑았단다.”

이모진은 사악하고 의심이 가득 찬 눈으로 날 쳐다봤다. “싫어요.”

“이모진, 너에 대한 좋은 얘기를 들을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도 확신이 안서는 것 같았다. 이모진 역시 자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아마 확신이 서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모진이 싫다면 전 상관없어요.” 내가 말했다.

이렇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선생님도 다른 아이들처럼 내가 뭘 적었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이모진 허드만이라고!” 루엘라가 소곤거렸다. “이모진 이름을 뽑은 거야? 이모진에 대한 칭찬을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니?”

“무조건 하나는 적어야 했잖아.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한 칭찬을 하나씩은 적어야 했으니까 그렇지.”

루엘라가 못마땅한 듯 눈알을 굴렸다. “난 이모진이 건강하다고 적었어. 그것 말고 다른 건 찾지 못했어.”

내가 찾은 이모진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루엘라 뿐만이 아니었다. 교실 전체가 아주 조용해졌다. 그 순간 난 제출하기 직전에 사전에서 ‘재치 있는’이란 단어를 찾아본 걸 기쁘게 생각했다.

“난 네가 애국적이라고 썼어. 그리고 용감하고 재치 있고, 또 기묘하고 예리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날카롭고 독창적이고...” 내가 이모진에게 말했다.

“잠깐!” 이모진이 소리 질렀다. “잠깐만!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정말이지! 이건 그냥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 쓴 거잖아! 다 똑같은 말이야!” 엘리스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난 엘리스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그리고 네가 보이드의 머리를 자전거 고정대에서 빼내준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엘리스가 다시 끼어들었지만 선생님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이 “엘리스, 그 입 다물어라.”라고 말 한 것은 아니다. 선생님은 이걸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지적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이건 이모진에 대한 베스의 생각이야.” 선생님이 말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엘리스 말이 맞았다. 난 혼자만 칭찬 세 개를 덩그러니 써서 제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베껴 썼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이모진과 어울리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단지 ‘날카로운’이란 단어만 이모진을 생각하면서 썼는데, 그건 이모진이 무릎과 팔을 무기로 써서 아이들 몸에 시퍼런 멍이 들게 잘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지금 그 말들은 이모진에게 딱 어울리는 말들이 되었다. 이모진

은 기묘하고 예리했다. 그리고 독창적이었다. 아무도 보이드의 머리를 버터로 칠하거나 빨래방에서 고양이를 씻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워드 머리에 그린 그 그림을 생각해 본다면 이모진은 창의적이기도 했다. 또 하워드를 보는 대가로 돈을 받은 걸 보면 진취적이기도 했다. 이모진은 또 아이들이 영원히 교무실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고, 하워드에게 담요를 줄 만큼 인간미도 있었다.

이모진은 내가 쓴 말에 딱 들어맞는 아이였다. 아니, 그 이상인 아이였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모진이 한 일들은 독창적일 수도 있고 창의적일 수도 있으며 또 진취적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었다.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만약 이모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이모진은 거의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아이였다.

이모진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다 이모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었다.

숙제발표가 끝날 무렵 선생님은 “칭찬을 하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려웠나요?”라고 물었다. 우리 모두 사람들 앞에서 자신도 모르는 장점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이 정말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스는 자기는 아주 정확하고 정직하게 칭찬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칭찬을 주는 쪽이 더 힘들었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지어내지 않고 말이야.” 엘리스가 날 보며 말했다.

“지어내지 않았어.” 내가 나중에 엘리스에게 말했다. “뭘, 용감하다는 것만 빼고 말이야. 이모진이 용감한 건지는 모르겠어.”

“넌 이모진이 무슨 훌륭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썼더라. 당연히 그게 지어낸 게 아니면 뭐야?” 엘리스가 말했다.

여름 방학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우리 모두는 함성을 지르며 교실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런데 이모진이 복도에서 날 붙잡았다. 그러곤 사인펜을 들이대며 팔에다 내가 적었던 단어들을 쓰라고 말했다.

“팔에다가 말이야?” 내가 말했다.

“난 팔에 메모를 하거든.” 이모진이 말했다. 팔에 적힌 피자, 큰 쥐, 글래디스 줄 것 같은 메모 자국이 몇 개 보이는 걸 봐서 그 말은 사실이였다.

글래디스에게 뭘 준다고? 잠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곧 글래디스를

때려 줄 것이라고 적혔던 것이었다는 걸 알았다.

이모진의 얇은 팔에 메모를 적을 공간이라고는 딱 한 부분밖에 없었다. 이모진은 ‘재치 있는’이란 단어를 써달라고 했다. “그게 가장 좋은 말이야.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우아하다는 말보다 훨씬 좋은 거야. 그렇다고 기분 나빠 하지는 마라.” 이모진이 말했다. 이모진은 팔에 적힌 그 단어를 감탄하며 바라봤다. “진짜 이 단어 마음에 들어. 이 단어로 문신해야지.”

난 누가 문신시켜 줄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 글래디스가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찰리가 길모퉁이에서 우울한 표정으로 날 기다리고 있었다. 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이 되면 우울해 했다. 매번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르로이 허드만이 유급되지 않았어.”

“르로이는 절대 유급되지 않을 거야. 허드만 남매들 중 한명도 유급되는 아이는 없을 거야.” 내가 말했다.

“그럼 난 르로이랑 영원히 같은 교실에 있어야 돼.” 찰리가 괴로워했다. “나 어찌지?”

“재치 있게 해결해봐.”

“어떻게? 그게 뭔데?” 찰리가 물었다.

“이모진에게 물어봐. 그건 이모진이 제일 잘 알거든.”